

메주고리예



Medjugorje

OCTOBER, 2004 제 23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가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되고 굶주림이 있는 곳에 양식이 되라고 부른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마음을 열고 자선의 손길을 펼쳐 너희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마음을 하느님께 열어 드려라.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단다. 그러므로 기도, 기도, 기도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주어 고맙다.

2004년 9월 25일



"성체성사의 해"

교황님은 21세기 영적 생활과 선교 사명을 위해 교회는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히 '성체성사의 해' 반포를 선언했다. 성체성사의 해는 오는 2004년 10월 10~17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성체대회를 시작으로 2005년 10월2~29일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시노드) 폐막 때까지가 될 것이다. 교황님은 성체성사에서 성체를 통해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은 그리스도 희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사랑, 자비, 평화의 그리스도 현존을 드러 내는 살아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체조배의 위대한 힘"

1981년 성 베드로 바실리카 대성전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계서는 성체조배에 관해 강조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셨다. "지구상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정립시키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길은 지속적인 성체조배의 위대한 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마더 테레사와 함께 차를 타고 자비의 집의 한 수도원에서 켈커타 시내에 있는 또다른 수도원으로 여행할 때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리아의 교의에 관한 마더 테레사의 질문에 답해 준 후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 미국을 회개시키는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더 테레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미국에 있는 모든 본당이 하루에 3시간씩 성체조배를 한다면 미국은 회개 할 것입니다."



성체의 해를 선포하신 교황님과 성모님의 지향을 위하여 하루의 첫 기도를 봉헌합니다.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체의 해를 선포하신 교황님의 지향을 위하여...
- 어머니 마을을 위한 성모님의 지향을 위하여...
- 교회와 사제,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봉사자들과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 모든 이민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성모님과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 부모님의 영혼과 가족들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소를 지향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을 예수 성심께 봉헌합니다.
- 고통 받고 있는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성체를 통한 치유 음악 기도회"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하여...
- 성모님, 모든 장애아들을 보살펴주시고 그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세요. ...
- 남편과 함께 메주고리에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성모님, 미카엘과 안토니오에게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 제28차 메주고리에 순례자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 지향을 위하여...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언니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성모님, 군인으로 이라크에 간 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주세요.
- Muzzanghee를 성모님께 봉헌하며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남편과 아이들을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합니다.
-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기도합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니와 동생의 가정을 봉헌합니다.
- 성모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과 악습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제 마음이 온전히 하느님을 향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 예수님께 헬레나의 가정을 봉헌합니다.

모든 지향들과 지면상 이곳에 기재되지 못한 기도 지향들을 위해서
메주고리에 순례때에 미사를 봉헌 했으며 발현 목격자 비스키를 통하여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최초의 감실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체성사”

성모 마리아는 성체성사를 온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 살으신 분입니다.

윤종식(디모테오) 신부



현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망망대해의 바다의 별이나 도로의 이정표 같이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표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교황님은 우리 신앙인들의 이정표요, 바다의 별이신 ‘성모 마리아’를 무척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의

존재의 원인이며, 직무인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십니다. 교황님께서 2002년에는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ROSARIUM VIRGINIS MARIAE, 2002, 10, 16) 교서를, 2003년에는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2003, 4월 17일) 회칙을 반포하셨고, 로사리오의 해(2002년 10월 - 2003년 10월)와 성체성사의 해(2004년 10월 - 2005년 10월)를 선언하셨습니다. 즉, 이 달부터 로마가톨릭 교회는 성체성사의 중요성과 의미를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자는 '성체성사의 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황님께서 하셨던 강론들과 위에서 언급한 회칙들에서 성모 마리아와 성체성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는 이 신앙의 두 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지난 8월 15일 루르드에서 행하신 강론에서, "성모 마리아의 원죄없이 잉태되심은 성부의 무상적 사랑의 상징이며, 성자의 구원활동의 완벽한 표현이고, 성령의 활동에 총체적으로 응답하는 삶의 시작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루르드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어머니 안나 성녀의 태중에

서부터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 응답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애를 옆에서 함께 지내셨고, 예수님의 죽음, 묻히심,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동반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사도들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은 그분의 삶을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즉,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1고린 11,24)라는 말씀을 따라 그분이 행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한 바를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으뜸이신 신앙의 모범이십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이는 교황님의 성체성사와 교회의 관계를 아주 잘 드러내는 회칙의 첫 문장입니다. 이 회칙의 3항에서 교황님은 "교회는 파스카 신비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파스카 신비의 뛰어난 성사인 성체성사는 교회 생활의 중심에서 있습니다.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파스카 성삼일로, 곧 성목요일 저녁의 사건들, 최후의 만찬과 그 이후의 일들로 되돌아갑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체성사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본래의 시작이며 중심을 잃고 지내는 모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구원 역사와 사랑을 기억하고 현재화하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은 성체성사의 여인이신 성모 마리아를 "성모님께서 온 생애를 통하여 '성체성사의 여인'이십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회칙 53항)라고 표현했으며 그 이유를 "성모님께서 순결한 당신의 태를 하느님 말씀의 강생을 위하여 바치심으로써 성체 성사 제정이

전에 이미 성체 성사의 신앙을 실천하셨습니다."라고 확인하십니다. (위의 회칙 55항). 그리고 성모님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현존하신 역사상 최초의 '감실'이시며, 십자가 아래서 계신 고통 당하신 성모님은 날마다 해골산을 준비하면서 일종의 '선취된 성찬례'를 경험하셨습니다.(위의 회칙 56항)



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인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교서, 3항 참조) 왜냐하면, "수많은 표정이 가리켜 주듯이, 오늘날에도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는 바로 이 묵주기도를 통하여 어머니! 로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위의 교서, 7항).

성모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성체성사의 여인

성체 성사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전쟁과, 돈 그리고 인간적 욕구로 인해서 이웃을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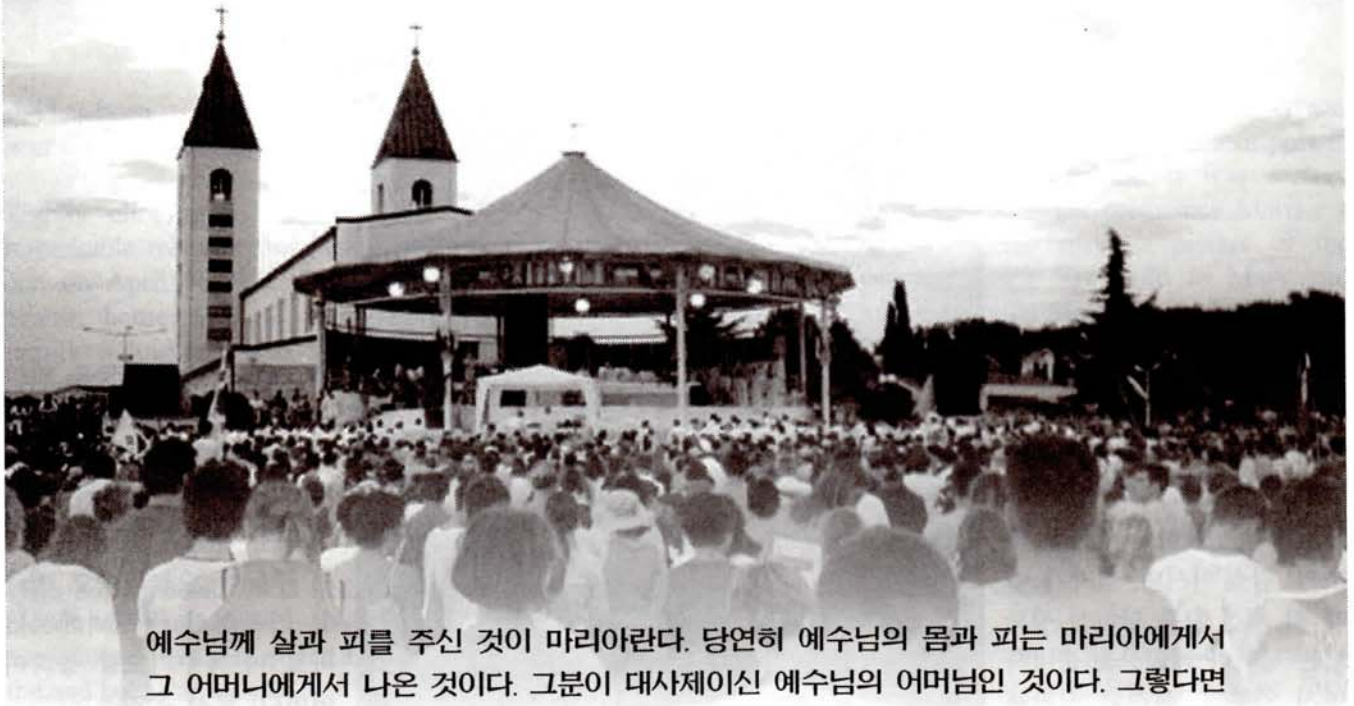
이시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성모님께 맡기셨으며, 그 제자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맡기셨습니다.(요한 19,26-27) 성찬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기억하는 우리는 십자가위에서 당신의 제자를 당신의 어머니께 맡기셨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교회와 함께 계시며 교회의 어머니로서 현존하십니다." (위의 회칙, 57항).

으로 보지 않는 세상에 평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교황님은 2003년 10월 7일, 폼페이외의 '로사리오의 성모 성지'에서 하신 담화에서 "로사리오에 그 본성상 평화를 지향하는 기도입니다. 로사리오에 단순히 성모 마리아의 중재의 힘을 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와 평화에 대한 그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라고 하시고 끝부분에서는 "여러분이 평화의 활동가들이 되십시오" 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십니다. "온갖 생활 신분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 가정, 병자와 노인, 젊은이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손에 다시 묵주를 드십시오" (위의 교서, 43항). 참고문헌 **M**

우리는 어떻게 성모 마리아처럼 성체 성사를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며 살 수 있을까? 교황님은 "성체성사의 신비가 빛의 신비로 드러나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 귀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 있는 변화시키는 힘을 인식하게 됩니다. 성모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새로워진 세상을 봅니다." (위의 회칙 62항), 라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던 성모님의 삶처럼, 성체성사의 신비를 믿고 매일매일 충실하게 참여할 때 우리는 서서히 변화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성모님과 함

1.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2002).
2.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2003).
3. 교황님의 강론들은 교황청 공식 홈페이지 "www.vatican.va"에서 이태리어본 참조.

메주고리예를 갔다와서



예수님께 살과 피를 주신 것이 마리아란다. 당연히 예수님의 몸과 피는 마리아에게서 그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분이 대사제이신 예수님의 어머님이신 것이다. 그렇다면 나 같은 대사제를 따르는 꼬맹이 사제에게는 더 더욱 어머니이신 것이다.

조민현 요셉 신부(오렌지 본당 주임)

나는 신학교에서도 내로라 하는 문제아였다. 말 안 듣고 반항심 많고 항상 모든 것에 뼈딱한 것이 나였다. 그런 내가 왜 신학교에 있는지 왜 신부가 되려고 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았다. 역시 그 모든 사람들의 예상이 그대로 적중하듯이 나는 4년의 신학교 생활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와 다시 복학한 5학년 초기에 부제품을 남기고 신학교를 나와버렸다. 나오면서 왠지 기쁘고 섭섭하고 너무나 길고 길었던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벗어났다는 해방감,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었는데 그 어두웠던 내 청춘의 한 시기를 이제는 드디어 벗어났다는 그러나 내가 하느님 없이 살 수 있나? 이게 바른 선택인가? 하는 두려움으로 한편 마음이 무거웠다.

메주고리예에서 백여 명의 신부들과 미사를 함께 하면서 지루하게 계속되는 신부의 강론에 지쳐서 그곳 신부들은 강론을 무슨 학술대회에 나온 사람처럼 원고를 목청을 높여 읽으니, 아무리 내용이 깊고 좋아도 재미있게 이야기하듯 풀어나가는 미국신부 강론에 익숙한 나는 금세 싫증이 났다. 옆에 있는 이태리신부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왔냐는 물음에 나는 처음부터

마리아신심이 형편없다고 깔아놓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 신부는 곧 어머니가 나를 무척 사랑한다느니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또 뻔한 소리하는구나 하면서 나는 금세 귀를 막아버렸는데 진지하고 심각한 그 신부의 얼굴이, 괴팍하고 자기만을 아는 신부들에 학을 뗀 나에게 왠지 마음에 끌렸다. 그리고 보면 거기에 모인 신부들에게는 뭔가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참 좋고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 혼자 사는 외로움에 치인 나는, 좋은 친구를 항상 갖고 싶었던 나는 이곳 신부들이 왠지 모르게 포근하게 느껴지고 만나는 이마다 따뜻하고 거짓없이 진솔하고 마음이 따뜻한 신부라는 것을 왠지 모르게 느끼게 해준다. 이들이 모이는 곳이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신학교에서 SANTUS SANTUS하면서 누구나 인정하는 착실한 친구들이 하나 하나 신학교를 떠나거나 신부가 되어서도 쉽게 성소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성소의 길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더 더욱 느껴졌다. 우리 반은 정말 완전히 반타작을

할 정도로 중간에 길을 바꾼 친구들이 많다. 사제로 죽고 싶다는 내 친한 친구의 말대로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성소 특히 사제 성소인 것 같다. 그런데 메주고리에 있는 동안 그 이태리신부의 말마따나 문득 문득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들이 많다는 것, 내가 무척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 왔다는 것, 특히 어머니가 나를 무척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식이라면 부들 부들 떨 정도로 자식이라면 무엇이든지 해 줄 분들이다. 나의 어머니가 그랬다. 아들 3명을 키우는데 치여서 너무 힘이 드셨지만 자식이라면 지금도 무엇이든지 해 주실 분이다. 그런데 문득 성모님이 내 어머니라면 그 분도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실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한번 신학교를 나와 다시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고, 다시 들어가서 신부가 된 사람은 전에는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고 한다. 내가 신학교를 나온 지 3년만에 학장신부님께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고 싶다니깐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신다. 그러면 미국 신학교에 가게 추천을 해 달라니깐 그것도 못해주겠다고 하신다. 내가 참 찍혀도 되게 찍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신학원장 신부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는데 “너는 안돼, 조민현 너는 안돼” 수십 번도 넘게 내 머릿속에서 맴돌던 말이다. 그런데 그런 내가 미국에서 신부가 되었을 때 내 동기들이 말했다. 민현아 너는 정말 성소가 있었구나! 성소,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나는 뭔가 마음속에 나를 하느님이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가 있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을까? 그것이 그토록 방황하고 헤매던 죄 많은 나에게 대한 어머니의 보호 하심이이었을까?

나는 성모신심이 형편 없다. 레지오에 강복 주러가서 가끔씩 신자들과 목주를 돌리지만 정말 깊이 기도한 적이 없다. 메주고리에서 나보고 목주기도를 선

창하라고 할 때 나는 영광송 후에 하는 기도조차 막상 할려니 잘 생각이 나질 않았다. 영어로 하다 한국말로 해서 헛갈린다고 그럴싸한 핑계를 대었지만 그것이 내 기도생활과 신앙생활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니 쥐구멍이라도 들어 갈 만큼 부끄러웠다.

예수님께 살과 피를 주신 것이 마리아란다. 당연히 예수님의 몸과 피는 마리아에게서 그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분이 대사제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이다. 그렇다면 나 같은 대사제를 따르는 꼬맹이 사제에게는 더 더욱 어머니이신 것이다. 우리에게 성체성사는 최후의 만찬인 성목요일에 이루어졌지만 마리아는 성체성사를 자기 몸에 처음부터 지니셨던 분이었고, 그렇다면 이 세상 최초의 감실이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현존이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됐고 마리아를 통해 나타났던 것이다.

신부라고 나에게 여러 가지 신앙잡지들이 많이 배달



되는데, 성모님께 관한 것은 대부분 다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는 것이 나왔다. 요즘 의심스런 신앙 운동이고 교회에서 조차 공인받지 못하는 마리아에 대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컬트라고 생각했다. 왜 어머니까지 나서서 그러냐? 예수님이면 됐지 성사면 됐지 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사람들이 헛갈릴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운이 좋게도 4명의 발현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바로 옆에서 듣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바로 5미터 안팎이었다. 그런데 내가 본 그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었고 조금도 이상한 광신도나 짜고 하는 사람들 같지 않았다. 그 사람들 이야기 하나 하나가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고 교회의 가르침, 성체성사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뜻이었다. 마리아가 발현할 때 성체성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발현을 놓아두고 미사에 먼저 가라는 것이 메세지의 내용이란단다. 당신은 단지 아들의 구속사업을 도와주고 그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줄 알듯이 그 곳의 열매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수백 명의 새파랗게 젊은 신부들과 수녀들은 내가 전혀 미국교회에서 본적이 없다. 우리 교구의 평균연령은 60이 되고 나는 젊은 미국수녀를 본 것이 손가락으로 셀 정도이다. 노래 부르며 박수 치며 펄쩍 펄쩍 뛰며 춤을 추는 젊은 신부들의 얼굴 속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제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내가 얼마나 죄 많고 타락한 신부였는지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저미어 왔다. 물질적으로 미국신부들은 너무 모든 것이 잘 보장되어 있고 풍요롭다.

그 것이 내가 이곳에서 4년 신학교 생활을 하고 5년 가까이 미국성당 보좌를 하면서 내가 살아 온 것 그대

로이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의 신부처럼 모든 것이 보장되고 보험부터 생활까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이 여기 교구 신부이다.

그런데 메주고리에는 훨씬 가난하지만 훨씬 깊은 신앙과 사랑으로 가득찬 신부들이 있었다. 그 것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 것이 내가 본 열매였다. 아득한 신들에 둘러싸인 분지인 메주고리에는 어쩐지 성모님의 옷자락에 싸여 그 분의 보호하심과 기도로 너무 많은 은총과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같다. 일편단심의 뜻을 세워 기도하고 단식하면서 성지순례를 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비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다.

진실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부르며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왔다. 나는 독신에서 오는 금욕에 항상 어려움이 많았다. 물론 그 어려움이란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특히 남자라면 다 아는, 아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같이 겪고 나누는 것이고 때때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십자가이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게 메주고리에서 그런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욕심과 탐욕 대신에 내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샘솟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음란하고 탐욕스런 마음이 솟지를 않았다.

우리 믿으려면 진짜로 믿자. 살려고 하면 진짜로 한번 살아보자 나는 껌데기로 신부 생활 하기 싫다. 어머니. AVE MARIA! 저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감싸주세요. 제가 섬기는 신자들이 하느님 체험하고 예수님 통해 구원 받도록 당신이, 어머니가 도와주세요. 우리 언제나 어디서나 SALVE REGINA 를 다같이 부르자. M

위대한 예언자 마리아 에스파란자스

수십년간 천주교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불리어지던
마리아 에스파란자스는 향년 75세로 뉴저지에서 운명하였다.



베타니아는 베네주엘라에 있는 카라카스 근처의 마을로서 성모님 발현 성지가 있는 곳이다. 그 곳의 발현 목격자인 마리아 에스파란자스는 비오 성인 이후로

가장 훌륭한 예언자이며 신비가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비오 성인처럼 예수님의 오상을 받았고 여러 번의 성체의 기적, 치유, 예언 등의 놀라운 은사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 곳 교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비오 벨로 리카르도 (Pio Bello Ricardo) 대주교님에 의해 마리아 에스파란자스의 삶 자체와 메시지들은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는 중요한 것으로 인정 받았다. 베네주엘라 교구에는 총 37명의 주교와 부주교들이 있는데 그 중 35명의 주교들이 마리아 에스파란자스에 대한 비오 벨로 리카르도 (Pio Bello Ricardo) 대주교님의 인준을 지지했다. 이제 베타니아는 성모님 발현이 공식적으로 인준된 성지로 지정되었다.

75세의 에스파란자스의 집은 베네주엘라 카라카스 근처에 있지만 그녀는 2003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미국에 있는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마리아 에스파란자스는 오랫동안 파킨스병으로 투병하고 있었는데 7월 6일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뉴저지의 서던 오션 카우니 병원 (Southern Ocean County hospital) 응급실에 입원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마리아 에스파란자스가 숨을 거두기 전 금요일,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네 분의 신부님들과 함께 집에서 그녀를 위한 마지막 미사를 봉헌하였다. 미사 중에 그녀의 입술에 성혈을 적셔 주자 그녀는 함께 있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신비한 반응을 보였다고 목격자들은 말했다. 2004년 8월7일 성모님께 봉헌되는 첫 토요일 날 새벽에 그녀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

던 남편과 7남매, 그리고 모든 손자 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성모님이 함께 하시는 신비로운 장미 향기로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녀의 삶에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늘 그녀를 보살피던 신앙심 깊은 남편 지오는 "그녀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여정"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1928년 11월 22일 태어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세 명의 아들이 있었기에 딸이 태어나기를 바라며 늘 성모님께 이 아기를 봉헌하면서 만일 딸이라면 그녀의 이름을 메어리 (스페인어로 마리아) 와 에스파란자 '희망' 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이웃에 사는 기도하는 여인이 아주 특별한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환시로 보고 전해준 예언대로 마리아는 음악의 수호자인 세실리아 성녀의 축일에 '마리아의 희망' 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인형들에게 사제과 수녀복을 입히면서 놀았다. 그녀가 다섯 살 되던 해 여행을 하기 위하여 불이 버시리 항구에서 엄마와 잠시 떨어져 있을 때였다. 그녀는 오리노고 강 한가운데서 강한 장미 향기와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빨간색의 장미꽃을 손에 들고 나타난 소화 데레사 성녀의 발현을 보았는데, 성녀는 그 장미를 작은 마리아에게 던져주었다고 한다. 그녀의 부모는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M**

(다음호에 계속)



저는 카톨릭 교회의 사제입니다. "그 사람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엠마뉴엘 수녀



8월 14일 우리는 축제 분위기 속에 멕시코의 콜베 성인의 날을 보냈다. 이 분은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느 가정의 아버지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제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아주

훌륭한 사제 성인이셨다. 미사를 집전하시던 사제는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을 준비해 놓았다. 폴란드의 화가이며 콜베신부님의 친구였던 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 화가는 콜베 신부님과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함께 생활하던 분으로서 그 유명한 콜베 사제의 사랑이 담긴 순교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그대로 이 사제에게 전한 화가이다.

어느 날 아침 수용소에서 한 명의 죄수가 탈출했다는 경고가 들려왔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엄청난 공포가 순식간에 그 안에 있는 이들을 휘어잡았다. 이들은 한 명의 탈출자가 있을 때마다 10명이 대신 죽어야 하는 이 수용소의 무서운 규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오늘 저녁까지 탈출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들 중 10명이 대신 죽는다." 라고 케이포는 소리쳤다. 그 날 죄수들은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케이포의 채찍과 사나운 개들의 위협을 받으며 꼼짝 못하고 서 있어야 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며 그 감옥소 안마당에서 끝나지 않는 공포의 시간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이 되자, 감시병들은 초죽음이 되어서 있는 이들 중에서 한 줄에서 한 명씩 뽑아 10명의 죄수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다. 중간 즈음 서 있던 사람은 자신의 번호가 호명되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떨면서 자기에게는 처자식이 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 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하며 앞으로 나와 지휘관 앞으로 가는 것이었다. 모든 죄수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감옥 안에서 가톨릭 사제로 알려진 멕시코의 콜베 신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정말 미쳤다.' '틀림없이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그는 무척 평화로워 보였고 무언가 굳은 결심을 한 것이 분명했다. 감옥소의 총 책임자는 그에게 누구냐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저는 가톨릭교회의 사제입니다." 라고 온유하게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을 저 사람 대신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깊은 고요가 뒤 따랐다. 그 책임자는, "저 사람들과 가라." 하면서 콜베 신부의 청을 들어주었다. 이 화가는 콜베 신부가 9명의 죄수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줄에서 맨 마지막으로 걸어 가고 있었다. 친구들과 마지막 모습이 감추어지는 순간, 그는 뒤를 돌아보면서 마치 강복을 하듯이 사랑의 손길을 흔들고 웃으며 사라졌다. 이것이 그곳에 있던 죄수들이 본 콜베 신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지하 감옥은 온갖 오물 냄새와 악취가 진동하고 너무 좁은 곳에 많은 사람을 넣어 앉지도 못하고 서로 기대어 있었으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뿐이었다. 콜베 신부는 이들이 죽기 전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얼마 후 그 동안 그곳에서 들리던 절망과 고통으로 아우성치던 소리들은 즉시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의 노래들로 바뀌었다. 죽기 전 날까지도 그는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그들이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이 안에서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지옥과 같았던 이 지하 감방은 바로 이 분의 본당이 되었다. 자신도 결핵을 앓고 있는 병자로서 어릴 때부터 하나 뿐인 허파로 숨을 쉬며 고통 속에서 살았던 이 사제는 이곳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해성사를 통해 불쌍한 영

죽기 전 날까지도 그는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그들이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

혼들의 마음을 비워주고 병자성사로서 마지막 길을 가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면서 미사를 봉헌하곤 하였다. 열흘이 지난 후, 그나마 이 감방은 다음 희생자들을 위하여 비워져야 했다. 그리하여 군인들이 감방 안에 있던 시체들을 하나 씩 하나씩 끌어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9명의 시체를 발견했고 콜베 사제는 그 안에서 얼굴 가득히 광채를 빛내며 마지막 생존자로 살아 있었다. 그 분은 사제로서 지하 감옥 본당 신자들의 마지막 길을 끝까지 함께 하며 지켜 주었던 것이다. 군인이 콜베 신부에게 독약 주사를 놓으러 갈 때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그 병사가 주사를 놓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겸손히 팔을 내 놓았다. 이것은 바로 이 군인이 콜베 신부가 복자로 시복될 때 증언한 말이다. 이 군인의 말에 의하면 그때의 이 사제의 눈이 너무나 온유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군인들은 이 사제에게 이상한 두려움을 느끼며 콜베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콜베 신부는 지옥 안에서조차 평화를 나르는 사제이셨다. 이 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감방에 있던 죄수들은 "우리의 고통은 그분이 죽기 전에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라고 했다한다. 이 감옥소의 총 감독도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1945년 해방 후, 미국인들은 숨어 있던 이 총책임자를 찾았는데 그를 폴란드 사람들에게 넘겼다. 그는 화장터 바로 앞에 있는 감방 안 마당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그는 죽어 가는 순간에 "천주교 신부"와의 만남을 청했다고 한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 분을 시성시키셨을 때, 그 분의 강론 주제는,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13)"이었다.

가장 사랑하는 고스파, 저 역시 당신의 손을 잡고자 하오니 제 손을 꼭 잡아주소서. **M**



멕시코리안 콜베 신부님은 성모의 기사 회를 창설하고 마리아자를 만들어서 온 세계에 성모님의 신심을 전하던 폴란드의 사제이셨습니다. 그 분은 미사 때에도 제대 위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성모님을 모시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성모님께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수도회의 수도자들이 모여서 콜베 신부님께 영적 말씀을 해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콜베 신부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수도자들을 바라보며 연민의 마음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 분을 사랑하십시오" 하고 말하고는 가슴이 벅차올라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폴란드에는 콜베 신부님께서 만드신 "어머니 마을"이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멕시코리안 콜베 신부님을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발행하면서 가장 안전하며 쉽고 빠르게 예수님께 가는 길이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편집실 주)

성체 성사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루르드의 양치는 소녀가 성모님의 이름을 물어 봤을 때 성모님께서는 "나는 무염시태(無染始胎)이다."라고 대답하셨다. 만일 오늘날 성모님께 어떤 호칭으로 불리우시기를 원하시는지 여쭙는다면, 아마도 "성체 성사의 보호자이신 성모님"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다. 이것이 마리아의 호칭들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이며, 교황청에서는 매년 5월 13일에 이 축일을 지내도록 정하였다. 우리가 마리아의 이 가장 새로운 호칭을 검토해보면, 그 의미의 깊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모든 신비들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들로 고양시켜 주는 힘에 대하여 경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성녀 말가리따 마리아(St. Margaret Mary)에게 당신의 성심께 대한 공경과 보속이 바쳐지기를 원하신다고 알려주셨을 때, 성체 성사 안에 살아 계신 주님께서 이 신심의 목적이 신자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며, 교회 안에 새로운 열정의 시기가 도래하게 하기 위함임도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체 성사에 대한 신심이 증가한 것은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이 전파된 주요 결과이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교회의 모든 은총들이 성체 성사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안의 다른 모든 신심들은 당신의 사랑의 성사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 대한 신심을 증가하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는 지난 수 세기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우리의 복되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교황님께서는 목주 신공이 모든 시대들을 위하여, 특히 가족 간의 초자연적인 연대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크리스찬 가정들을 천주의 거룩하신 모친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하여 가정의 기도로서 적합함을 거듭 거듭 강조하셨다. 천주의 모친께 대한 이 신심은 늘 성체 성사의 예수님께 대한 신심과 함께 한다. 마리아께의 신심은 예수님께 이

르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며, 모든 은총의 중심과 근원인 성체 성사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공경되시는 거룩한 순례자들을 보면 마리아께의 신심과 함께 성체께 대한 신심이 증가됨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 동안 마리아께서 결코 아드님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다. 성모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에집트로 피난시키셨으며 그리고 30년 간 같이 사셨다.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에는 공중(公衆)의 눈에 띄지는 않으셨으나, 항상 아드님의 곁에서 침묵하시며 보이지 않게 함께 하셨다. 갈바리아 산에서는 폭도들이 온갖 욕설을 퍼붓는 가운데 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아드님의 육신을 받으셨다. 우리 주님의 승천 후에는 마리아께서 매일의 영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모셨다.

초대 교회 시절에는 성체가 신자들이 모이던 크리스찬들의 가정에 모셔져 있었으므로,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밤낮의 대부분을 감실 앞에서 흠송하시면서 보내셨다. 위대한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에 의하면, 초대 교회 시대에는 성체가 흠송의 목적과 병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존되었다. "성체 성사의 성모님"이라는 호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리아께 봉헌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성체 성사에 대한 신심이 미래의 시대들에 특별히 활발해지게 되어 있었으므로, "성체 성사의 성모님"이라는 호칭이 성모님의 다른 호칭들보다도 더 드러나게 될 것이며, 성모님께 충실한 자녀들이 지금 교회가 바야흐로 진입하려고 하는 열정과 성성(聖性)의 시대에서 성모님을 즐겨 부르는 호칭이 될 것이다.

성체께 대한 신심은 사실 교회 안의 다른 모든 신심들의 중심이며, 사실상 모든 은총들의 근원이다. 미사 성체는 갈바리아의 재현(再現)이다(The Mass is the



renewal of Calvary). 마리아께서는 갈바리아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고통을 아드님의 고통에 합치시키셨다. 미사가 없다면,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수난의 열매들을 가져다 줄 주요 방안을 잃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총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통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얻어주신 은총의 보물 전체에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것은 미사 성제를 통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의 성 금요일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의 은총을 받았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날 받은 은총으로 또는 나중에 사도들의 설교를 통한 은총으로 구원되었다. 백부장(the Centurion), 착한 도둑(the Good Thief),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그 날 그 곳에 있었으므로 인하여 예수님의 신성(神性)을 고백하게 되고 신앙과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미사는 그 첫 번째 성 금요일의 재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성체 성사를 세우시어, 구속의 열매들이 당신의 성체를 통하여 전 세계에 퍼지도록 하셨다. 따라서 미사에 참례하는 이들은 그들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첫 번째의 성 금요일에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이들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은총과 신앙의 선물들을 받을 수 있다. 미사가 바쳐지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얻어주신 축복들이 모든 신자들의 영혼들과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주어진다. 이는 예수님의 고통들이 당신께서 죽으시던 현장에 있었던 이들 외에도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었음

과 같다. 그러나 그 날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이들만이 그 날 주어진 특별한 은총들을 받을 수 있었다. 착한 도둑과 백부장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 곳에 있지 않았던 이들과 미래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수난의 공로를 주로 미사 성제를 통하여 받게 된다. 예수님께

서는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고 하셨다.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은 주님의 이 명령을 거행해 왔으며, 이로써 우리는 말라키아(Malachi)의 예언이 성취됨을 본다. 그는 새 계약의 희생 제사가 모든 곳에서 해 뜰 때로부터 해 질 때까지 바쳐질 것이라고 하였다. 미사 성제는 갈바리아의 희생 제사를 재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현장에 있었던 이들보다 미사에 참례할 수 있는 우리가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사에 참례함으로써 예수님 수난의 모든 공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성체로써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을 받아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성체에서 우리 주님을 받아 모시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예수님 수난의 공로들을 받을 수 있다.

초대 교회 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신자들은 미사에 참례할 때마다 영성체를 함께 익숙해져 있었으며, 개인의 영혼을 위하여 영성체가 없이는 미사의 은총들이 완전하지 못함이 인식되었다. 매일의 영성체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관습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사도들과 복음사자들이 자주 "빵을 떼는 예식 (the breaking of bread)" 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성체를 의미한다고 성서 학자들이 설명한다. 성모님께서 예수님 승천

▲ ▲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통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얻어주신
은총의 보물 전체에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것은 미사 성
체를 통해서이다.

▼ ▼

후에 얼마 동안 이 세상에서 사셨는지는 정확하게 알려
져 있지는 않다. 수아레즈(Suarez)와 교부(敎父)들의 다
수는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승천 후에 24년 간을 사셨다
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 기간 동안에 성모님께서서는
사도들을 위로하시고 가르치셨으며, 나자렛에서의 30년
간의 숨겨진 삶에 대하여 알려주셨다. 성모님께서서는
신자들을 조언으로써 도우셨으며, 당신의 현존만으로써
도 그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주셨다. 성모님께서 말씀
하실 때에는 그분 영혼의 감미로움과 평온함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갔다. 그 기간 동안에 마리아께
서는 은총에 있어서 더욱 성장하셨다. 그 기간이 그분
께 주어졌던 것은 당신의 모든 행동과 당신 성심의 모
든 의향에 있어서 사랑과 영적 아름다움이 더욱 증가되
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마리아께서는 이미 은총에 가
득차 계셨으니, 당신께서 행하신 가장 미소한 행위라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보다도 더욱, 당신을 더 높
은 성성으로 올려주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마리아
께서는 당신 삶의 매 순간마다 거룩하심이 더 깊어지셨
으며, 연세가 드심에 따라 그분의 성성은 지상의 모든
신자들과 하늘의 모든 성인들의 성성을 다 합친 것을
초과하셨다. 이는 마리아께서 행하신 가장 미소한 행
위가 그분 영혼의 높으신 은총 지위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이들의 행위보다도 더 가치있다는 뜻이니, 그 이
유는 다른 이들의 은총이 마리아의 은총에 비해볼 때
너무나 작기 때문이다. 그 기간 동안에 마리아께서는
주로 성체 성사에 대한 당신의 신심으로 인하여 은총과
사랑에서 진보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어머님께서 영원토록 당신께 영혼으로서 가능한 최대한
도로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당신 성심의
효심으로써 마리아를 당신의 승천 후에도 여러 해 동안
지상에 더 계시게 하셨다. 마리아께서 매일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을 천상 양식으로 모셔 양육되셨으니, 그분
의 영혼은 더 많은 은총들로 장식되었고, 사랑과 성성

에서 고양되셨다. 그리하여, 드디어 그분의 사랑의 맹
렬함이 당신을 세상에 매고 있던 끈들을 불태워버림으
로써, 그분은 하느님의 품으로 날아가셨다. 마리아께서
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함께 천국으로 가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의 성성이 완
전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는 마리아께서 당신의 은
총을 조금이라도 잃으신 일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은총에 완전히 협력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
승천 후의 시기가 그분께 주어진 것은 그분을 전대미문
(前代未聞)의 높은 성성으로 올려드리기 위함이었다.
마리아께서는 이러한 특별하고 출중한 영광을 성체 성
사를 통하여 성취하시게 되어 있었다. 그분의 생애 마
지막 가까이 가서는 매일의 영성체가 마리아께서 취하
시는 유일한 음식이었다. 그리고, 매번의 영성체 때마
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써는 측량할 수
없는 신속함으로써 증가되었다.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주로 감실 앞에서
의 신적인 묵상으로 나날을 보내셨다. 물론 때로는 신
자들이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했기 때문에 성체께 대한
흠숭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안티옥의 성 이냐시오스(S.
Ignatius of Antioch)는 성모님께 편지를 써서 그가 신앙
을 위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관해서 도와주십사고
청하였다. 성모님께서서는 곧 성 요한과 함께 안티옥에
있는 그를 방문하실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우리는 또
다시 마리아의 사랑에 찬 마음을 보게 되며, 그분께서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감미롭
게 대해 주시는지를 볼 수 있다.

자연의 양식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해줌과 같이, 성체
성사는 우리 영혼들을 위한 양식이다. 이제 성모님께
서 주로 하시는 일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도
우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께서 당신의 자
녀들을 영성체의 천상 양식으로 이끌고 계시며, 그 자



너들이 어려움이나 슬픔 중에 있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심을 알 수 있다. 마리아의 자녀들은 때때로 그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표시하고자 여러 가지의 외적 공경 행위로서 노력하며 이 사랑에 찬 어머니께 대한 그들의 애정을 표시한다. 마리아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음의 내적 순결이다. 이 사랑에 찬 어머니는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순결하신 분이시다. 마음이 순결한 이들에게만 예수님과 마리아께서 그들의 비밀들을 알려주신다. 마음의 순결(purity of heart)과 의향의 순결(purity of intention)은 성체 성사의 천상적 양식에 의해 양육됨으로써 가장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모든 시간을 감실 앞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시면서 보내셨다. 이 기간 동안에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기도와 성체 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의 신심을 통하여 더욱 많은 은총을 받으셨다. 우리가 마리아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그분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본받기만 하면 된다. 마리아께서는 순결한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순결은 성체 성사를 통하여 보존될 수 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매일의 영성체와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의 흠숭과 기도로서 자신들을 성화하기를 원하신다. "성체 성사의 성모님"이라는 호칭이 모든 신자들에 의해서 올바르게 이해되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교회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한 성인들을 많이 배출하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M**

이 글은 오래버티 신부님(Fr. H. O'Laverty)께서 쓰시고(1915), Tan Books & Publishers에서 출판한(1987) "하느님의 어머니님과 그분의 영예로운 축일들 (The Mother of God and Her Glorious Feasts)"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승인은 벨기에 브뤼주 (Bruges, Belgium)의 반 데르 메르슈 주교님 (Most Rev. J. Van der Meersch)께서 해주셨습니다.

(1925년 6월 27일) (Mary's Touch By Mail)



평화의 모후 선교회 23호 후원회원

이로사. 오수산나. 한울리안나.
김혜영. 김정희. 노안나.
송란규. 오베로니카. 이준영.
신소연. 이정옥. 지니김.
테레사. 김안나. 강복희.
한발바라. 정명화. 한재순.
홍레지나. 김이현. 전재흠.
김나은. 조운선. 조성호. 조승신.

임지연. 홍병호. 김글로레타. 함카타리나. 김안나.
김혜정. 이선이. 양미카엘라. 임신자. 박혜원. 강진희.
강창미. 이미숙. 김용희. 이선영. 이경애. 김은영.
최상원. 조성진. 한미숙. 최인순. 최헬레나. 이테레사.
김병운. 송선희. 서루시아. 이엘리사벳. 오테레사.
노종만. 김시순. 이재선. 김경남. Cyuthia Ziegmann.
이기자. 윤혜영. 박혜정. 표혜경. 이태. 강우영. 윤병희.
김시순. 이재순. 김진미. 유미영. 이혜경. 전영. 이한순.
이수은. 최경숙. 박혜정. 노천명. 지정혜. 김말가리다.
홍정옥. 김일령. 이세실리아. 제인안. 권레지나.
이비비안나. 유글라라. 김루시아. 신동배. 서정희.
익명 \$100. 최프란치스코 부부. 주황용부부.
조민현 신부님

보내주신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제 23호 소식지는 "성체의 해와 로사리오 성월"의 특집으로 총 8천부를 인쇄하여 캐나다와 미주 전 지역에 무료 배부했습니다.

• 후원금 합계	\$ 5,472.00
지출 (22호 소식지)	
인쇄, 발송, 원고료	\$ 7,986.00
통신비	\$ 568.00
교통비	\$ 649.25
기타 비용	\$ 712.00
• 지출 합계	\$ 9,915.00
• 부족금	\$ 4,443.00

23호 발행을 위한 지출의 부족한 금액은 10월 순례의 이익금에서 대체했습니다.

사제들에게 전하는 성체의 메시지 (Messaggi eucaristici per i sacerdoti)

윤 종식 디모데오 신부
(의정부 교구)



1993년 5월 23일

성모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은 거룩한 성체로 살아가는 내 직무자들의 마음을 다스려주십니다. 그분은 내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의 비밀을 내 직무자들의 마음에 새겨주어 맡기고, 성부로부터 부여된 유산을 공유하도록 해주십니다.

나는 자신과 그대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성화를 위한 특별한 은총들을 받기 위해 어머니에게 되돌아오는 마음들을 순수하고 티 없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성심의 지혜는 성부의 사랑을 실현시키고자 언제나 그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십자가의 살아있는 은총은 모든 사제들을 성화 시키고, 그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동정하신 어머니에게 항할 때 구원활동에 합당한 협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모든 것을 내어 줍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사람을 성화시키는 많은 축복과 은총이 있습니다. 특히 내 성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관된 풍성한 은총과 보물들이 언제나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대들은 구하십시오. 내 어머니의 성심을 통하여 항구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들에게 넘치도록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통하여 나에게 청하는 기도와 원의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정화되어, 모든 것을 보다 완벽하게 이루어줍니다. 그대들은 모든 이에게 사랑스런 어머니의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이에게 내 성심을 주기를 원하기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특별한 은총으로 그대들 곁에 있으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항상 나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지니십시오. 나는 그대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며,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줍니다. 특히, 나의 어머니를 통해 청하는 것들

을...

내 성심과 어머니 찬미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항상 내안에 머무르십시오. 나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있고, 그대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채워주며, 그대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희생과 기도, 그리고 통회에 대하여 보답할 것입니다. 나는 내 모든 사랑으로 늘 그대들과 함께 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1993년 6월 11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여, 마치 내가 그대들에게 끊임없이 나를 내어주듯이, 무한한 사랑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이는 모든 거룩한 성체로부터 솟아 나오는 생명의 활력인 내 사랑을 선한 원의를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대들의 마음은 그대들의 창조주와 함께 사랑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몸과 피는 마음의 겸손과 순수함으로 나를 반기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이나, 내 몸과 피 안에서 창조주와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징벌의 샘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내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며 이로부터 살아있는 사랑의 성전으로 존재들을 승화시키는 모든 은총들이 그곳에서 솟아나옵니다.

성체는 항상 그대들에게 있어서 하느님과의 사랑을 위한 결합의 중심이기에 그대들의 모든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나를 찬양하고 끝없이 사랑 하십시오. 그대들은 마치 모든 이에게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투명한 유리 같이 될 것입니다.

그대들이 사랑의 내 메시지를 전할 때, 세상에서 만나는 반대는 세상이 지닌 나에 대한 경향인데, 이는 나보다 더 우월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오만함으로 드러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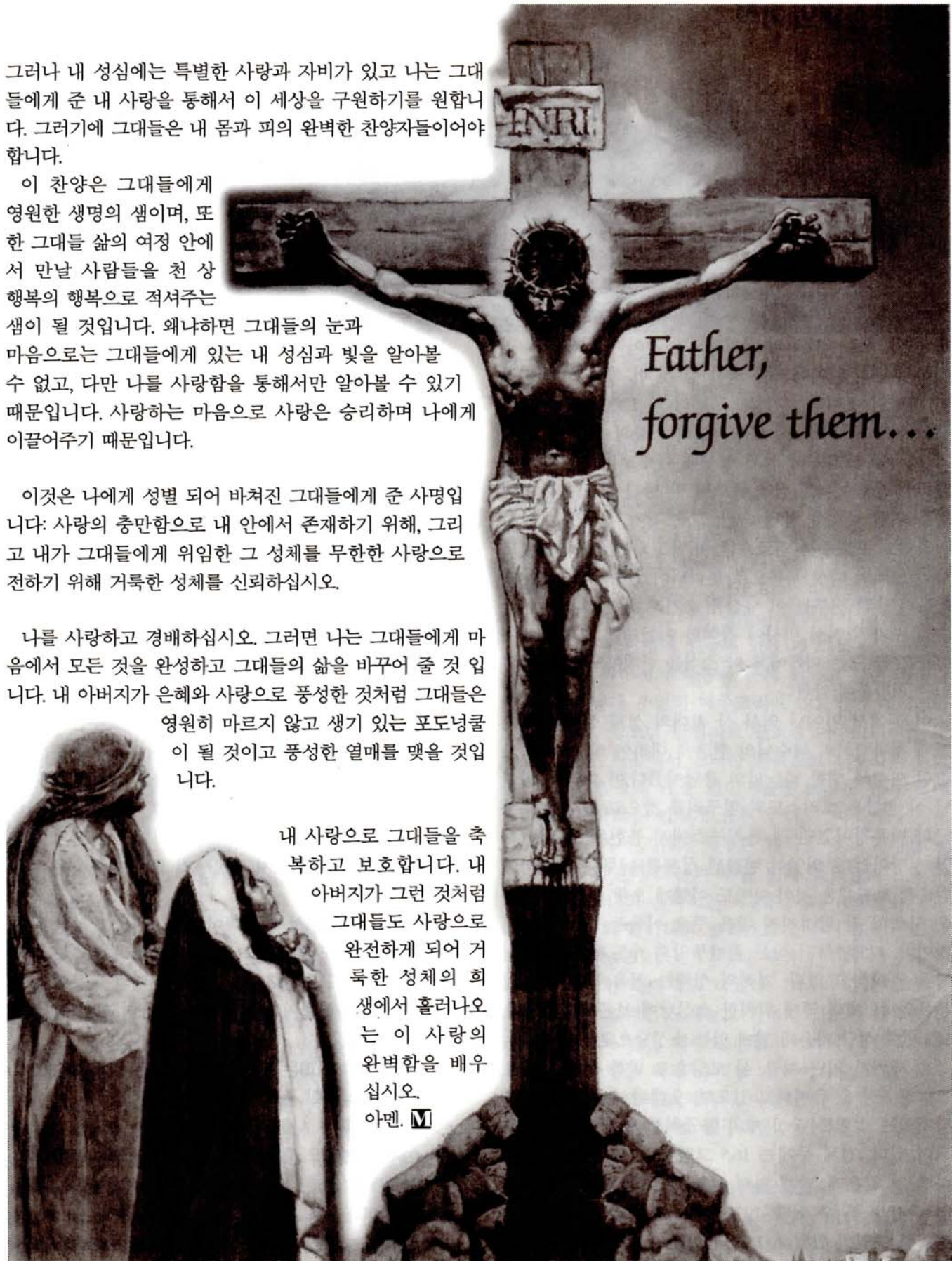
그러나 내 성심에는 특별한 사랑과 자비가 있고 나는 그대들에게 준 내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대들은 내 몸과 피의 완벽한 찬양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찬양은 그대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이며, 또한 그대들 삶의 여정 안에서 만날 사람들을 천 상 행복의 행복으로 적셔주는 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의 눈과 마음으로는 그대들에게 있는 내 성심과 빛을 알아볼 수 없고, 다만 나를 사랑함을 통해서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은 승리하며 나에게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성별 되어 바쳐진 그대들에게 준 사명입니다: 사랑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서 존재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그대들에게 위임한 그 성체를 무한한 사랑으로 전하기 위해 거룩한 성체를 신뢰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대들에게 마음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그대들의 삶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것처럼 그대들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생기 있는 포도넝쿨이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그대들을 축복하고 보호합니다. 내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그대들도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어 거룩한 성체의 희생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의 완벽함을 배우십시오.
아멘. **M**



Father,
forgive them...

란치아노 성당의 기적

"Fac nos tibi semper magis credete, in te spem habere, te diligere"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더욱 더 당신을 믿고 당신 안에서 희망을 찾고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체께 대한 신심이 깊은 이라면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이태리의 란치아노일 것이다. 이태리의 끼에띠 부근의 란치아노는. 역사 상 첫 번째의 성체 기적이 일어난 곳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 8세기 중의 어느 날 아침, 성 바실리오회 소속의 한 수사 신부가 미사를 드리면서 성체 성사때 예수님의 현존하심에 대하여 불현듯이 의심을 품으며 막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를 위한 축성을 끝낸 순간, 그는 갑자기 제병은 살로 변하였고 포도주는 피로 변하여 응고되어 각각 다른 모양과 크기의 다섯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너무나 놀란 신부는 이 사실을 숨기려 하였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미사에 참석한 이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곧 모든 이들에게 이 소식을 란치아노 시 전체와 인근 지방들에 알렸다.

이 곳에서 일어난 역사 상 최대의 성체 성혈 기적은 성체 성사에서의 예수님의 현존에 대하여 한 사제가 가졌던 의심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이 성당은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로마군의 백부장이었던 성 론지누스에게 봉헌된 초라한 시골 성당이였다. 외양이 변화된 성체를 너무나 조심하여 깊숙히 보관해온 것이 아마도 이렇게 오랫동안 그 놀라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주요 이유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1252년부터 작은 콘벤뚜알회 수도자들이 그 성당을 관리하고 있다. 기적의 성체는 처음에는 성당 앞부분의 큰 제대 옆에 위치한 소성당에 보존되었으나, 1636년에 성당 가운데 옆에 있는 소성당으로 옮겨졌다.

12 세기가 지난 지금, 살 모양으로 변한 성체는 붉은 스펀지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래된 수정 석작 안에 담겨있는 성혈은 다섯 개의 불규칙한 형상의 피덩이로 되어 있다. 전체 무게는 16.5 그램이다. 얼른 보면 빛이 바랜 것 같은데, 밝게 하여 보면 황토색 비슷한 자연적인 색깔을 볼 수 있다. 1971년에는 과학적 검사에 이어 장엄한 공인이 있었다. 1574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할 주교들에 의한 인정이 있었으나, 1970년과 1971년에 해부학, 병리 조직학, 화학, 및 임상 현미경학 교수이며 아레쑤(Arezzo) 병원의 수석 의사였던 오도아르도 리놀리(Odoardo Linoli)가 성 프란시스 성당을 맡고 있던 프란치스코 회 수사 신부들의 요청에 따라 기적의 성체와 성혈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검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리놀리 교수가 기적의 성체와 성혈의 샘플을 채취하여 아레쑤 병원의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리놀리 교수가 완료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과학적인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샘플이 채취된 것은 1970년 11월 18일이었는데, 란치아노의 페란또니 대주교가 참석하였는데 오전 10시 15분에 대주교는 그의 선임자였던 프란시스 페뜨라르카 주교에 의한 1886년의 봉합을 깨어 열었다. 교수는 성체로부터 20 밀리그램 정도의 아주 작은 두 개의 샘플을 채취했으며, 성혈로부터는 318 밀리그램을 채취하였다. 리놀리 교수는 거의 3 개월에 걸쳐서 그 샘플들을 조사하였다. 그는 검사 기간 동안 시에나 대학교의 인체 해부학 교수였던 유명한 로저 베르텔리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1971년 3월 4일, 성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성당에 수많은 학자들이 모였으며, 그 곳에서 리놀리 교수는 그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의 구두 설명과 더불어 수많은 사진들과 문서들이 제시되었다. 다음이 그의 발표 내용의 요약이다.

1. 성체 기적의 피는 진짜 피이며, 살은 진짜 살이다.
2. 성체는 심장의 근육조직이다.
3. 그 살과 피는 사람의 것이다.
4. 성체와 성혈의 혈액형은 서로 일치하며 AB형이다. 이 혈액형은 한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성혈에는 일반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정상적인 비율

의 단백질들이 발견되었다.

6. 성혈에는 다음의 무기물들이 발견되었다. 염화물, 인, 마그네시움, 칼륨, 정상보다 약간 적은 양의 나트륨, 그리고 정상보다 많은 양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리놀리 교수는 다음의 설명을 덧붙였다.

- A. 이 성체가 인간의 심장으로부터 해부적으로 잘려온 것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 B. 이 성체와 성혈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학적인 방부 조치를 취한 흔적은 전혀 없다.
- C. 그러므로 이 성체와 성혈에 있는 단백질과 무기물들이 오랜 세월 동안 대기와 미생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지 않고 보존된 것은 절대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이다.

리놀리 교수의 과학적 조사는 여러 주요 의학 잡지들에 보도되었고 이태리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과학자들 사이에 광범위한 지지를 계속하여 받고 있다. 1973년에 이태리의 의사이며 생물학자인 요셉 비온디니(Joseph Biondini) 교수는 그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세계 건강 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리놀리 교수의 검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세계 건강 기구는 이 보고서의 특별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곱 나라들로부터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리놀리 교수의 분석 결과를 조사하도록 위임하였다. 그것은 리놀리 교수의 정직성이라든가 과학자로서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의 결론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극히 중요한 의미 때문이었다. 핵의학 등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되었던 15 개월 간의 연구 끝에 그 국제적인 과학 위원회는 성체와 성혈의 기적에 대한 리놀리 교수의 검사 결론이 완벽하다고 확인하였다. UN 산하의 그 과학자들은 란치아노의 성체 기적이 "유례가 없는 케이스"이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라고 선언하였다.



란치아노 성당의 보관된 기적의 성체와 성혈

신앙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란치아노에서의 성체 기적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신학과 영성에 관하여 지니는 중요성은 별도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기적의 성체와 대면할 때, "깊은 경외의 감정과 신심"(교황 바오로 6세) 및 가장 편견을 가진 이들까지도 끌어당기는 힘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란치아노에서의 성체 기적" 책자는 이태리어 원본을 기본으로 수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란치아노에서의 성체 기적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귀중한 선물로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신비의 징표이며, 우리 믿음을 위해 주신 주님의 부르심이다. 1974년 11월 3일 오전에 폴랜드의 고위 성직자들이 란치아노의 성지를 방문하였는데, 그들 중에는 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되신 와틸라 추기경도 있었다. 그는 오랜 기도중에 방명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Fac nos tibi semper magis credete, in te spem habere, te diligere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더욱 더 당신을 믿고, 당신 안에서 희망을 찾고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Adore Te Devote에서- M

트리반드룸 대교구 히라타코남의 성 마리아 성당에서 일어난 성체의 기적

존슨 카롤르 신부

나는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형상이 어떻게 트리반드룸 대교구 히라타코남의 성 마리아 성당의 제대위에 모셔진 성체 안에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관해 쓰고자 한다. 2001년 4월 28일, 우리는 평상시처럼 히라타코남의 성 마리아 성당에서 성 유다에게 드리는 9일기도를 바쳤다. 8시 50분에 나는 성광 안에 성체를 넣고 감사의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감사의 기도 중에 나는 성체 위에서 세 개의 점이 있음을 보고 어떤 내적 영감으로 좀더 자세히 성체를 보려고 일어섰다. 9일기도가 끝났을 때 나는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 한 후 성광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들도 역시 성체 위의 세 점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나는 신자들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고 성체를 다시 감실에 모셨다.

2001년 5월 5일 토요일 아침, 트리반드룸에서 돌아와 미사를 하기 위해 제의를 입고 감실 문을 열었다. 그런데 성체 위에서 노란 빛이 나는 사람 얼굴 형상이 보였다. 나는 놀라서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신자들에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고 나는 혼자서 이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복사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 보았다. “한 형상이 보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신자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동안 사람 얼굴의 그 형상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나는 신자들에게 할 말을 잃고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성서의 구절을 읽고자 내가 성서를 펼쳤을 때 나온 곳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예수님께서 성 토마에게 나타나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셨던 부분

이었다. 나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도 그에 관해 강론을 할 수 없었다. 그저 몇 마디 말을 했을 뿐이다. 코코두 성당에 가서 다음 미사를 드려야 했으므로 사진사를 불러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성체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었다. 두 시간 후에 사진이 현상되었다. 석 장의 사진은 그 형상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형상이 점점 더 명확해져 있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체 앞에서 기도드리기 위해 성당을 찾아온다.

다음은 키릴로의 마르 바세리오스 대주교가 히라타코남의 성 마리아 성당에서 일어난 성체의 기적에 대해 발표한 성명이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성체를 흠송하며, 이 특별한 현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거행 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세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기적의 성체

우신 이래, 가톨릭교회는 예수께서 이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믿음을 언제나 확고히 지녀왔고, 성체성사를 거행하면서 이 믿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성찬식이 거행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체 안에 현존하심을 믿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빵과 포도주가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함을 믿으며 이 성사 안에서 그분의 현존하심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 때 "너희는 세상이 끝 날 때 까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이미 믿어 온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일 뿐입니다.

말씀 하시며 이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성체 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믿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성체 안의 예수님의 현존에 대한 이 믿음은 교회 안에 들어온 새로운 믿음의 진리가 아니라, 초창기부터 굳게 유지되고 실천되어 왔고 또 가톨릭교회의 삶 속에 항상 중심이 되어 왔던 믿음입니다. 성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심은 우리 이성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 이성을 통해 당신 현존을 인지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한 많은 예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신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발현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체 안에 현존하신다는 믿음은 드러나는 어떤 감각적인 표징 위에서만 뒷받침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표징을 통해서만 성체 안의 주님의 현존을 믿는 사람들을 염려 하십니다. 성체 안에 주님 현존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마지막 만찬 때 하신 예수님 말씀 속에 온전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목격자가 된 이 위대한 성체의 표징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성체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보는 이 성체 안의 얼굴 형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형상을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자연적이고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주님께서 이곳에 특별한 개입을 통해 특별한 표징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분명 정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이미 믿어 온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이 물음에 돌려야 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유례에 없는 특별한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이 거룩한 표징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우리에게 특별한 표징을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총 가득한 관심과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헌신적인 응답을 합시다. **M**

이 기사와 사진은 인도-케랄라의 게바르크헤제 마르 디반나시 오스(Geevarghese Mar Divannasions) 주교의 허락을 얻어, 로마의 그뤼터 신부가 [메주고리에] 2002년 2월호에 게재한 것을 발췌한 것이다.



나는 성체의 어머니이다



"나는 나의 이 메시지가 널리 알려지도록, 내 책에 (앞서) 수록된 메시지들 사이에 실어 주기 바란다. (그렇다.) 전세계에 전파되기 바란다. 왜냐하면, 진정한 '어머니' -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의 기쁨에 겨운 어머니이지만 동시에 고통에 잠긴 어머니이기도 한 나의 티없는 성심에 씌울, 사랑과 흠숭과 감사와 보상의 화관이 되라고, 내가 오늘날 전세계에서 너희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1)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흠숭과 사랑과 보속과 감사의 사제 순례단이 되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께, 내 아들이요 내 하느님이신 예수께, 위로를 드리려고 이곳에 온 걸 보니, 내 마음 가득 기쁨이 넘치는구나! 지상의 모든 감실 안에 참으로 계시는 사랑의 현존이신 그분이, 허다한 내 자녀들과 특히 상당수의 내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의 심한 무관심과 배은망덕에 둘러싸여 공허 속에 홀로 계시곤 하니 말이다!

7) 그래서 나는 참으로 '지극히 복된 성찬의 엄마'가 되기도 하다. 이는 물론 내가 '제대'에서 이 신비로우신 분을 다시 낳기 때문은 아니다. 그 임무는 오로지 내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인 너희에게만 맡겨져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너희의 그 임무는 엄마로서의 나의 역할과 아주 유사한 것이다. 너희 역시 거룩한 '미사' 중에 (성체) '축성의 말씀'에 의해서 참으로 내 '아들'을 낳기 때문이다. 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동굴의 차디찬 구유에 그분을 모셨고 너희는 차디찬 돌제대에 그분을 영접하지만, 너희도 나처럼 (분명히) 내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너희는 내 성자 예수님의 진정한 '어머니'인 이 어머니에게서 각별한, 아주 각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들이다.

8) 그러나 나 역시 참으로 '성찬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는, 사제인 너희가 축성의 동작과 말씀을 하는 순간

에 예수께서 실제로 현존하시게 되기 때문이다. 빵과 포도주라는 예물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에 인간인 너희가 "예!" 하고 응답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새로이, 또 실제로 현존하실 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이다.

9) 그리고, 그분의 그러한 현존은 '강생 구속 사업'을 계속하시기 위함이요, 내가 그분께 드린 몸을 취하심으로써 인성을 지니게 되었기에 성부께 바치실 수 있었던 '갈바리아의 희생제사'를 신비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은 당신 신성과 영광스럽게 되신 '몸'을 아울러 지니고 계시니, 그 몸은 바로 너희 천상 엄마에게서 받으신 몸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몸이다.

10) 아들들아, 그분의 몸은 영광스럽게 되신 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몸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태어나신 몸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드린 그 몸 -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어 갈바리아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안장되셨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바로 그 몸이다. (다만) 부활하실 때 새로운 모습, 즉, 영광에 싸인 신적 형상을 취하셨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마리아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체 축성의 순간에 낳는 그분도, 신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영원히 '마리아의 아들'이시다.

11) 그러기에 나는 '성체의 어머니'이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로서 항상 내 '아들' 곁에 있다. 내 몸도 '승천'의 특은을 입었으므로 지상에서나 '천국'에서나 마찬가지로이다. 세상 어느 '감실'이든지 예수께서 현존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나 나 역시 함께 있는 것이다.

13) 영광스럽게 된 몸은 시공을 초월한다. 즉, 이 조그



만 산(山)의 성당 감실에서 너희와 마주 계시는 예수님이 동시에 온 세상 모든 감실에도 현존 하시듯이, 영광스러운 몸을 지닌 너희 '천상 어머니'도 여기와 다른 모든 곳, 그분을 모신 모든 감실 가까이에 현존한다. 14) 그분께는 '내 티없는 성심'이 사랑과 흠숭과 감사와 끊임없는 보상으로 살아 고동치는 모성적 '감실'이다.

15) 나는 기쁨에 겨운 '성체의 어머니'이다.

16)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성자께서 계시는 곳에는 성부와 성령께서도 항상 함께 계신다. 성부 오른편(* 마태 26,64; 마르 14,62; 시편 110,1)에 앉으시어 성령과의 친교 안에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성체 안에서도 너희의 ('축성' 말씀)을 통해 현존하시게 된다. 즉, 이 '엄마 마음'에 안겨 감실 안에 모셔질 때도, 성자와 함께 성부와 성령께서 언제나 참으로 현존하신다. (성체 안에)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께서 항상 현존하시는 것이다.

17) 그리고, 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쁨에 겨워 황홀한 너희 '천상 엄마'도 (세상) 모든 감실 가까이에 현존한다. 또 모든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홉 개의 빛의 '합창단'을 이루어 지존하신 성삼의 크신 능력을 여러 단계로 나타내듯 다양한 음조로 하모니를 이루며 그분의 '전능'을 찬송한다. 천사들의 이 합창단 주위에 모든 성인들과 복자들이 있고, 이들은 지존하신 성삼께로부터 솟아나오는 '빛'과 사랑과 끊임없는 기쁨과 무한한 영광에서 영구적이고 갈수록 증대되는 지복을 받는다.

18) '천국'의 이 정점까지 모든 '연옥' 영혼들의 깊은 (갈망의) 숨결, 정화의 고통,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가 올라온다. 그들은 천국을 향한 열망, 증대되는 사랑의 복받침을 느끼지만, 그 완성은 그들의 니약과 죄로 말미암아 진 빛 전체에서 서서히 해방되는 정도에 비례하므로 '사

랑'(이신 분)에 의해 완전히 새로워질 때까지 (계속된다). (이후)

그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 주위에서 울려오는 천상 노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지존하신 성삼께서는 천국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외진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감실이라면 어디나 현존하시는 것이다. 19) 예수님 곁에 있는 나는 따라서, 기쁨에 겨운 '성체의 어머니'이다.

20) 나는 고통에 잠긴 '성체의 어머니'이다.

21) 사랑의 중심이신 '예수 성체'를 에워싸고, (살아) 고동치는 '개선 교회' 및 '단련 교회'와 함께, (지상의) '신전(神戰) 교회', 곧 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인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들인 너희도 모두 모여야 한다. 천국과 연옥과 일치하여 영원한 흠숭과 찬미의 송가를 바치기 위함이다.

22) 그러나 오늘날, 텅 빈 공허와 극심한 무관심과 배은망덕이 감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 내가 파티마에서 예고한 시대가 되었거니와, 그때 나는 (내 발현에 앞서) 파견된 '천사'의 음성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음의 기도를 가르쳤다. (이는 공중에 나타나신 성체 대전에서 바친 기도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님, 당신을 깊이 흠숭하나이다. 또한 세상 모든 감실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쳐 드리오니,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능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워잡기 위함이니이다"

23) 이는 바로 너희의 이 시대를 위해 가르친 기도이다.

24) 예수께서는 오늘날 '공허'에 싸여 계신다. 이 공허는 특히 사제인 너희들에게서 기인한다. 너희가 사도적 활동을 할 때 흔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일들을



좃아 무익하게 걸도는 통에, 사제다운 하루 일과의 중심이 '여기' 감실 앞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현존하시는 감실, 누구보다도 너희를 위해 모셔져 계시는 감실이니 말이다.

25) 그분은 또한 내 수많은 자녀들의 '무관심'에 싸여 계신다. 그들은 마치 예수께서 (감실 안에) 계시지 않길라도 한 듯이, 전례에 참여하기 위해 성당에 들어와서도 그들 가운데 참으로 현존하시는 하느님인 그분께 대한 의식이 없다. (게다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흔히 성당 구석 자리에 모시곤 하는데, (마땅히) 중앙에 모셔서 그분께서 교회 집회의 중심이 되시게 해야 한다. 주님의 성전인 교회는 우선 그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26)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께 대한 수많은 교회의 태도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한다. 교회 집회에 사용되는 무슨 물건처럼, 변변찮은 구석 자리에 그분을 모셔 두니 말이다.

27) 그러나 오늘날, 티 없는 내 성심에 가장 고통스러운 가시관이 되는 것은 (성체께 대한) '모독'이다. 이 시대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모령성체를 하고 있다! 성찬식이 거행될 때마다 모령성체가 행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엄청난 상처가 얼마나 교회 전체에 퍼지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마비시키고 침체시키며 불순하게 만드는지, 또 얼마나 중병에 시달리게 하는지를 너희가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나와 함께 너희 역시 한정 없이 흘러 내리는 눈물에 잠기게 되리라!

28) 그러므로, 내 성심에 봉헌한 내 소중한 사제들과 자녀들아, 너희가 (바로) 오늘날의 '신전 교회' 전체를 '성체' 안에 계신 예수께 다시 불러들이는 '우렁찬 소집 나팔'이 되어야 한다. 오직 그분께만 교회의 매마름을 깨

끗이 고치고 사막이 되어버린 교회를 새롭게 할, 살아 있는 물(*요한 4,10;7,38)이 솟는 샘이 있다. 오직 그분께만 은총과 빛의 '두번째 성령 강림'을 향해 교회를 열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이 있다. 오직 그분께만 쇠신될 교회의 거룩함의 원천이 있다. 오직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만!

29) (그런즉) 너희의 사목계획이나 토론, 너희가 의지하고 믿는 인간적 수단들이 전체 교회에 완전한 쇠신력을 줄 수는 없다. 오직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뿐이다). 그분만이 가난하고 복음적이며 순결한 교회, 모든 (인간적)의 일로부터 벗어난 교회, 거룩한 교회, 너희 '천상 엄마'를 닮아 흠도 주름도 없이 아름다운 교회(*에페 5,27 참조)가 되도록 이끄실 수 있을 뿐이다.

30) 나는 나의 이 메시지가 널리 알려지도록, 내 책에 (앞서) 수록된 메시지들 사이에 실어 주기 바란다. (그렇다.) 전세계에 전파되기 바란다. 왜냐하면, 진정한 '어머니' -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의 기쁨에 겨운 어머니이지 만 동시에 고통에 잠긴 어머니이기도 한 나의 티 없는 성심에 씌울, 사랑과 흠숭과 감사와 보상의 화관이 되라고, 내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너희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8월 8일 루비오 (비첸자)에서 거룩한 묵주기도 합송후에 스테파노 곱비 신부에게 주신 성모님의 육성 메시지) 밀라노 교구의 성 바오로 수도 공동체 소속인 스테파노 곱비 신부는 1972년 5월 8일 파티마에서 '마리아 사제운동'을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 후 교황님과 일치하여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와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운동을 하고 있으며 방문하는 곳에 교황님이 강복을 전달하기도 한다. "나는 곱비신부와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황 강복을 줍니다. - 1988. 12. 3 M

지금 이 세상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생명의 나무를 침범하고 있다 !



죽은 사람의 인간복제를 했다고 주장하는 파노스 자보스 박사

미국 켄터키 대학 생식생리학 명예교수인 파노스 자보스 박사가 조만간 TV에 출연해서 두명의 죽은 남녀로부터 DNA를 채취하고, 이를 이용해 태아를 만드는 이른바 '죽은 사람 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자보스 박사는 자동차 사고로 죽은 11살 소녀(캐디)와 한 33세의 남자로부터 DNA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난자에 주입해서 시험관에서 복제 배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자보스 박사는 이로 인해 사랑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유전자 복제를 원하는 세 가족을 돕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자보스 박사의 발표는 다큐멘터리 작가 '피터 윌리엄스'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영국의 '채널 4'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1978년 최초의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루이즈 브라운의 탄생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이 다큐멘터리에서 자보스박사는 살아 있는 암소의 난자에 죽은 이로부터 뽑아낸 DNA를 주입한 바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보스 박사는 암소의 난자는 인간의 난자보다 크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쉬웠으며, 세포분열이 시작되어 배아단계에 이르렀으나 배아를 64세포 이상까지 자라지는 않게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그는 또 인간과 동물간의 이종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앞으로 죽은 사람의 DNA를 인간의 난자에 주입해 복제배아를 만든 다음 이를 인간자궁에 착상시켜 죽은 사람의 복제인간을 만드는데 이 기술을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자보스 박사의 이같은 주장은 엄청난 윤리적 논란과 반발을 일으켰다. 자보스 박사를 비난하는 측은 그가 '신처럼 행동하려'는 무시무시한 '프랑켄슈타인 과학'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자보스 박사를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자보스 박사는 '나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신처럼 행동하지도 않는다. 단지 신의 일을 할 뿐'이라며 이들의 비난을 일축했다.

(영국 AP통신 '더 메일 온 선데이' 기사 인용)

“인간을 단순한 사물로 격하시키는 어떠한 윤리적, 인간적 고려도 없는 잔인한 심성의 표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3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낙태와 안락사를 비난하고 인간 복제는 인간을 단순한 사물로 격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이날 바티칸 주재 각국 외교관들에게 행한 연례 신년사에서 생존권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지칭하면서 "예를들어 낙태와 안락사, 인간 복제는 인간을 명령에 의해 생사가 결정되는 단순한 사물로 격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또 "모든 도덕적 기준이 제거된다면 생명을 다루는 과학 연구는 사람의 존재와 존엄성을 부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95년 성직자들에게 보낸 회칙에서 교황은 낙태와 안락사가 어떠한 법률로도 합법화될 수 없는 범죄라고 선언하는 등 낙태와 안락사에 강력히 반대해왔으며, 최근에는 인간 배아의 줄기 세포를 활용한 연구와 인간 복제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실제로 교황청 대변인은 최근 복제 아기가 탄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윤리적, 인간적 고려도 없는 잔인한 심성의 표현"이라고 비난했었다. 바티칸은 이번 주내에 인간 복제와 낙태를 비롯해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상충하는 주제들을 다룬 문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티칸시티 AP=연합뉴스 2003. 01) **M**

하느님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다른 모든것을 포기해도 그것만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발현 목격자 Mirjana Dragicevic 와 Tomislav Vlasic 신부와의 대화

토미신부: 미리안나. 이곳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과 특별히 당신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으면 합니다.

미리안나: 저는 지금까지 18개월간 매일 성모님을 만났는데 그 분은 저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대해주십니다. 저에게는 명확하지 못했던 천국, 연옥, 지옥을 보여 주시며 성모님이 말씀하시길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은 이미 지옥의 한 부분이 되어 그곳에서 구원되지 않기를 바라드립니다. 그리고 성모님 말씀으론 연옥에도 단계가 있는데 지옥에 가까운 연옥, 천국과 가까운 연옥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이 성탄절에 천국으로 올라간답니다.

토미신부: 당신 말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지상에서 하느님을 거부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서 가셔도 거역한다는 것이지요?

미리안나: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 하시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을 비난하고 증오하며 심지어는 원망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의 일부가 되어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토미신부: 지상에서 연옥 영혼을 위하여 바치는 기도가 연옥 영혼들에



게 전해지나요?

미리안나: 그렇습니다.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 지상에서 바쳐주는 기도는 연옥의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토미신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지 성모님께서 이야기해주시던가요?

미리안나: 성모님이 말씀하시길 요즈음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연옥으로 가고 그 두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며 천국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고 하셨습니다.

토미신부: 성모님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여쭙어 보았습니까?

미리안나: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따라, 진실되고 거짓없이 평화스럽게 사는 사람을 바라십니다. 큰 기적이거나 엄청난 속죄보다도 단순하고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믿음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미신부: 천국, 연옥, 지옥 외에 최근에 알려주신 새로운 일은 없습니까?

미리안나: 성모님께서 요즈음의 많은 사람들이 사제들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신앙 생활을 결정하는데 성모님께서 "사제를 판단하고 그의 개인적인 생활을 평가하기 위해 교회에 가서는 안된다. 사람들은 사제로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가야한다" 고 하셨습니다.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요즈음은 많은 사람들이 사제때문에 신앙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느님과 악마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악마가 하느님께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로우려만 하느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마치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을 믿지 않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선 악마의 힘을 시험해보고자 한 세기를 악마에게 허용했는데 악마는 20세기를 선택했습니다. 요즈음은 우리 주변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불만족해 하고 사랑과 평화가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예가 낙태와 이혼의 증가율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모두가 악마의 영향을 사람들이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토미신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악마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 안에 악마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안나: 그들 안에 악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악마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기도의 필요

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정에 성물을 비치해야 하며 집은 정기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갖고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예로 이곳 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는 이슬람교와 세르비아 정교로 분열되어 있는데 이런 분열은 좋지않습니다. 성모님께선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성모님은 종교적 일치의 부족을 한탄하시며 자신의 종교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종교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토미신부: 요즘 시대는 왜 악마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말해주세요. 그것에 대해 성모님께 물어보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미리안나: 내적 상처가 있고 마음이 연약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으며 악마는 그 사람의 상처를 통하여 가장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삶에도 침투합니다. 악마는 비신자보다 오히려 열심한 신자들을 유혹 하여 가능한 많이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토미신부: 이번에는 성모님께서 주신 10가지 비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성모님을 본 6명중의 한 사람이 표징이 나타나기 전에 세가지 비밀을 세상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밀이 하나씩 나타난다고 하는데 맞나요?

미리안나: 일부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맨 처음에 몇 개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곳에서의 성모님의 발현을 확신하게 되지요. 그리고 표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언덕으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용서 받게 됩니다. 비신자들에게 관해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야하고 그들 자신도 기도해야한다."고 하시며 "시간이 남아 있을 때 회개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토미신부: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비밀을 말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어떤 것도 말 할 수 없겠지요?

미리안나: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 허락 하실때 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비밀에 대하여 할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토미신부: 성모님께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우리 스스로 준비할 것이 있나요?

미리안나: 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



길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며 내일 죽는다 해도 두려워 하지 말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하지만 하느님을 믿는다면 그들의 영혼은 두려움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느님께 자신들을 맡긴다면 하느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십니다.

토미신부: 성모님께서 10가지 비밀 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는지요?

미리안나: 성모님께서 크리스마스 이틀전에 저에게 크리스마스가 저에게 마지막 발현날이 될거라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날 성모님은 저와 45분간 같이 계셨고 여러가지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그 분과 저 사이에 그동안 나누었던 모든 것을 요약 해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삶을 마칠 때까지 성모님께서는 저의 생일날 발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어려움이 있을때는 저를 도우시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모님과 매일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야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성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회개하

세요!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도 그것만은 포기해선 안됩니다!

토미신부: 인류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요? 무엇으로부터 오는걸까요?

미리안나: 하느님을 믿지않고 누구도 믿지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유럽은 신앙이 매우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들 나라에선 사제가 좋은 모범이 되지 못하면 그들은 하느님이 안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제들의 사적인 생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토미신부: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목격자들과 앞으로의 발현에 대해 말씀하셨나요?

미리안나: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다른 목격자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주면서 도와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모든이들은 서로 이해하고 같이 있어야합니다.

토미신부: 성모님께서는 미래의 일이

나 또는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적인 발현에 대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나요?

미리안나: 네 제 생각으로는 6명 각자가 10가지 비밀을 모두 받게되면 성모님께서는 더 이상 발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Svetozar Kraljevic 신부가 쓴 "메주고리에의 성모 발현" 중, 1983년 1월 10일 Mirjana Dragicevic의 Tomislav Vlasic 신부와 의 내용에서 발췌...) **M**

(미리안나는 6명의 발현 목격자들 중의 한사람이며 성모님께서는 그녀가 정화의 시기에 있을 일에 대해 자신이 받은 10가지 비밀의 내용으로 몹시 괴로와하자 미리안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시기 위하여 그녀의 생일인 3월 18일 외에도 매월 2일에 미리안나를 찾아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날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냉담자들, 특히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하느님의 현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현재 메주고리에의 6명의 발현 목격자중에 미리안나, 이반카, 야콥이 성모님으로 부터 10가지의 비밀을 받았으며 비스카, 이반, 마리아 3명은 모두 9가지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다음호에는 비스카와의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 편집실 주 -

자신들의 삶을 변화하기를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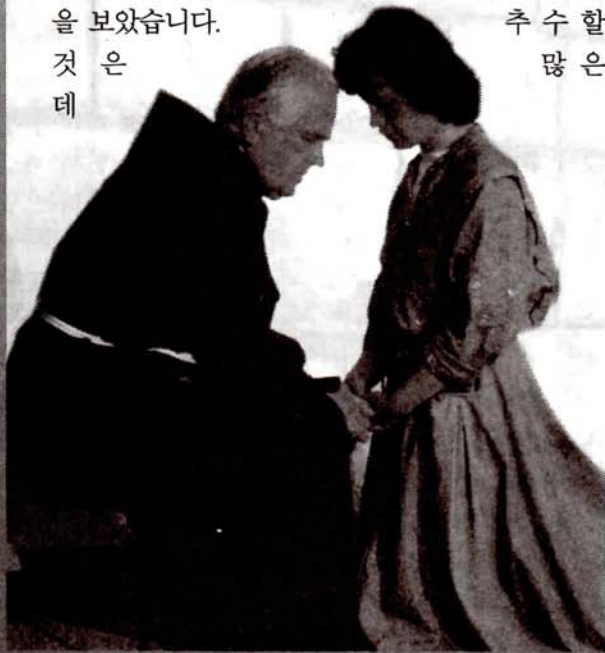
산 라몬/페루의 Julio Ojeda Pascual 몬시뇰과

Gerard Anton Zerdin 몬시뇰의 메주고리에 순례 체험담.

Julio Ojeda Pascual 몬시뇰:" 저를 초대한 자그레브의 프란치스코회 덕분에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저는 이곳에서 매우 긍정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온 것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진실로 순례를 하려고 이곳에 오며 이곳은 거룩한 기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 페루의 Gerard 신부님과 프란치스코회 신부님들이 주신 신문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나에겐 단지 낯선 이름들이고 한편으로는 회의적이었지만 이곳에 와보니 부정적인 것은 전혀 없군요.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함과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신자들의 회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향한 사람들의 영적 여정을 위한 기도의 은총을 믿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으로 마치 돌처럼 단단한, 죄인들인 사람들이 이곳에서 회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 은

추 수 할 많은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참된 회개는 추수 할 때를 위해서 더 많은 하느님의 일꾼들을 은총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동기로,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이곳에 옵니다. 집에 돌아가면 제가 메주고리예에서 본 것과 체험한 것을 말해 줄 작정입니다. 깊은 명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이곳에서 순례하는 날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항상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시는 성모님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의 일상 생활에 충실하고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이끄시는 것에 충실합니다."

Gerard Anton Zerdin 몬시뇰: "신문에서 메주고리에 발현을 읽었습니다. 이곳의 순례자들은 진심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자신들의 삶을 변화하기를 바라며 회개하면서 하느님께 가까이 갈 때 그들을 향한 은총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성사를 통해, 변화되고 더 나아지고 더욱 그리스도 신자답게 되기 위해 항상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린 미사에 참석했고 오늘은 우리의 임무와 성소를 묵상하기 위해 발현 언덕에 갔었습니다. 우린 하느님께, 성모님께,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선교사들과 일꾼들을 보내달라 간청했습니다. 순례를 통해, 기도를 통해 사람들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다른 이들의 체험은 또 다른 이들을 회개하도록 자극합니다. 우리는 보고 체험하려고 이곳 메주고리예에 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M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기도회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체의 해"를 맞이하여 11월 8일부터 23일까지 하느님 사랑의 자녀회와 체나콜로 동동체의 형제들을 초청하여 미주 12개 지역에서 자신들의 체험과 음악으로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메주고리에 순례를 다녀 온 사람들은 성 야고보 본당에서 드리는 거룩한 묵주기도, 미사, 성시간에 영혼을 깨워 주던 메주고리에 음악을 잊지 못한다. 순례자들은 그 음악을 들으며 가슴 깊숙히 들어 오시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자신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속에서 치유의 은총을 받는다. 세속의 음악을 연주하던 이들이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연주하게 된 것도 성체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어둠속에서 빛으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 사랑의 자녀회" 수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 가는 자신들의 기쁨과 체험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느님 사랑의 자녀회

"하느님 사랑의 자녀회"는 메주고리에에서 발현하시는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께서 제시하신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얻어진 결실이다. 이 공동체를 설립한 창설자는 모데나 출신의 로사리아 델라 까리따 수녀인데 이곳 메주고리에에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유럽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메주고리에를 방문하게 되었고, 천상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경험하면서 디자이너로서의 세상의 모든 명예와 화려한 조명과 부를 버리고, 완전하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였다. 이곳에는 두 부류의 거룩한 삶의 형태가 있

는데, 남성공동체를 "통고의 마리아 사도회"라 불리고, 여성공동체를 '보혈흡송자매회'라고 하는데 현재 교회로부터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공동체에는 수도자, 평신도, 결혼한 평신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성은 보속기도로써 동정 마리아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 공동체의 각 회원들은 메주고리에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 시키고 이곳에서 회개의 씨앗을 얻게 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공동체의 운영은 하느님의 섭리에 맡겼으며 생활수단으로 나무 묵주를 제작하거나 성물, 공동체 내에서 제작하는 음악 CD 혹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이들은 메주고리에에서 발현하시는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실천해 나가면서 특별히 성모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기도회를 조직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1993년부터 젊은이들이 여러 사제들과 로사리아 델라 까리따 수녀의 지도에 따라 공동체 생활에 시작했다.

이 공동체는 콜롬비아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정글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마의 단체인 "스베란차 디 꾸어리" 협회와 함께 콜롬비아에서 버림받은 고아들을 위한 양부모 자매결연을 하고 있으며 인도에 고아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런 활동들은 회원들의 음악과 기도회 진행, 세미나 진행 등을 통해 얻는 모든 수익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멜린다 Melinda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멜린다는 1975년 12월 3일 루마니아의 시나이아 Sinaia 에서 음악을 하는 부모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멜린다에게 바이올린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게 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녀를 음악인으로 키우기로 결심한다. 아홉 살이 되었을 때 멜린다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브라소브 Brasov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바이올린 연주회를 시작으로 여러 번에 걸쳐 솔리스트로 연주하면서 화려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요한네스꾸 갈라티 I Ionescu Galati는 그녀의 부모들에게 멜린다가 앞으로 엄청난 재능을 발휘하는 연주가 될 것이라는 격려를 하였다.

어린 바이올리니스트는 루마니아의 젊은이들의 음악가 콩쿨이 열리는 곳마다 출전하여 상을 휩쓸며 12살이 되었을 때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로 보내 David Oistrach's best pupils - 빅토르 피카이센- 에게 오디션을 받고 그녀의 전폭적인 후원자가 된다. 그는 멜린다를 국제 마스터 코스인 "In Memoriam of David Oistrach"에 초대하였으며 1990년 그녀가 14 살 되었을 때 이탈리아의 스프레사 Stresa에서 열린 국제 피아노 바이올린 젊은이들의 음악가 콩쿨에서 1위의 상을 받게 된다.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의 많은 TV에서 그녀의 연주회를 여러 번에 걸쳐 실황 중개하였으며 많은 대사관의 초청으로 독주회를 열기도 했다. 15살 되었을 때, 빅토르 아쉬켄나쉬 Viktor Ashkenazy와 함께 밀라노에 있는 아이작 폴만 Itzak Perlman의 오디션에 참여하고 아이작 폴만의 지도를 받았으며 그는 앞으로 그녀가 대단히 훌륭한 연주가 될 것임을 예견하였다. 그녀는 12일 동안 영국을 순회하며 자선 공연을 하여 수익금 전액을 브라소브에 있는 암병동을 짓는데 기부하였다. 같은 해에 이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는 Sir Jehudi Menuhim 오디션

에 참여 하여, 장학금을 받고 스위스의 Menuhin 아카데미에서 수학하게 된다. 1992년 멜린다는 일본의 초대로 전 열도를 독주 순회 공연하면서 미래의 스승이며 Pupil of David Oistrach의 교수인 자하르 본 Zakhar Bron교수를 만나게 되어. 부카레스트의 Menachim H. Elios Foundation을 통해 뉘백 Lubeck에서 자하르 교수의 지도 하에 6년 동안 음악 수업을 계속한다. 1994년 모든 음악 수업을 마친 그녀는 Bron 교수와 Serg더 Fatkouline 교수에 의해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와 러시아에 그녀의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녀가 한창 학업에 열중해 있을 때 그토록 사랑하던 음악가였던 아버지의 죽음을 듣게 되었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지낼때 우연히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고 스스로 성모님 발현지로 알려진 메주고리에를 찾아오게 된다. 이곳에서 그녀는 슬라브코 신부와의 만남을 갖게 되고 소리 소문 없이 1년을 보내게 된다. 후에 그녀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 한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성모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당연히 그분의 뜻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의 음악적인 재능은 이제 대중들을 위한 클래식 독주회가 아니라 슬라브코 신부의 도움으로 교회 음악과 악보도 없는 그녀의 즉석 연주의 재능이 발견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였다. 그녀의 CD는 그녀에 의해 작곡된 영적인 노래들로 가득차 있으며 선종한 슬라브코 신부가 만든 메주고리에의 어머니 마을에 세운 고아원의 운영을 위해 수익금 전액이 기부되고 있다. 2001년 그녀는 멕시코,파나마, 아일랜드, 레바논 등지에서 메주고리에 음악으로 연주회를 가졌다.

롤렌 파츨라이너 (Roland Patzleienr)

기타를 연주하는 롤렌 파츨라이너는 이탈리아인으로 1968년 10월 3일 볼자노에서 오스트리아인이 어머니와



회장 남 그레고리오



신 경남 신부



체나콜로 형제들



작은북 루이지 바실레

이탈리아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독일 언어권에서 태어났다. 23살 때까지 여러 직업을 가졌으며, 특히 음악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으나 마약에 중독 되어 학업을 중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중 부모님의 권유로 메주고리예를 순례하였다. 그 후 메주고리예를 순례하던 중 로사리아 수녀를 만나 다시 학업을 마쳤다. 그 후 일년 정도 분별의 시간을 가진 후에 로사리아 자매가 창설한 “하느님 사랑의 자녀회”에서 생활 하며 사제의 꿈을 갖게 되어 2001년 이탈리아에서 철학과 신학 과정을 마쳤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메주고리예에 있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메주고리예 본당의 전례를 돕고 있다. 그가 가장 크게 받은 은총은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으며 성모님을 통하여 가치를 잃어버린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상관 없는 삶을 살던 그가 이제는 메주고리예에서 매일 발현하시는 평화의 모후의 전구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느님의 놀라우신 업적을 음악과 체험으로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다. 이런 경험으로 그는 과거의 자신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을 통해 진정한 생명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젊은이가 되었다. 지난 5월 20여일간의 한국에서 이루어진 메주고리예 찬양 연주단과 체나콜로 공동체 행사 기간에 참여하여 영혼이 담긴 아름다운 노래들을 작사 작곡하여 한국의 많은 신자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전하였다. 특별히 메주고리예에서 회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작사 작곡한 “Give us your Peace”는 각국어로 번역되어 그의 회개한 영혼의 진솔함이 크로아티아어의 아름다운 화성과 음률의 조화로 전해지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그 외 많은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여 메주고리예 본당 성시간과 매년 개최되는 유스페스티벌의 노래와 기타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열리는 요조조브코 신부님의 언어권 별 피정에서도 전례 음악을 맡고 있다.

루이지 바실레 (Luigi Basile)

작은 북을 연주하는 루이지 바실레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1968년에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고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생이었지만 늘 소심했다. 루이지 바실레는 학업을 마치고 탁월한 사업적 재능으로 많은 부를 쌓았다.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를 이룬 그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와 함께 살게 될 멋진 빌라를 짓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무의미를 느꼈으나 그 무력증으로부터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때 까지 단 한번도 주의기도나 심지어 성호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 왔던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어느 날은 자신도 모르게 집안을 뒤굴며 하느님께 소리쳤다. “하느님, 제발, 당신께서 계시다면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 뒤, 우연한 기회에 젊은이들이 현시된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나 그로서는 그 성광 속에 담긴 하얀 물체가 무엇인지도 몰랐음에도 처음으로 평화를 느끼고 그 안에 자신을 내맡겨 버리게 된다. 그 후 “하느님 사랑의 자녀회” 창설자인 로사리아 델라 가리파 수녀를 만나게 되면서 신앙을 배우며 회개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성소를 느낀 그는 약혼녀와 사회적인 지위, 부를 모두 버리고 사제로서의 삶을 위하여 공동체에 들어 간 후 이 곳에서 룰렌 파출라이너와 함께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마쳤으며 현재 서품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은 메주고리예에 있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메주고리예 본당 전례에 봉사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에서의 메주고리예 음악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자신이 체험한 성모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음악으로 들려 주었다.

이반 무사 (IvanMusa)

기타를 연주하는 이반 무사는 1982년 3월 4일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모스타르에서 태어났다. 현재 그는 모



기타 이반 무사 가수 베베 김양건

가수 안 엘렌 통역 남기옥 마르따

스타르 대학교 법학과 3년 재학 중이며 메주고리에 본당에서 성시간과 메주고리에에서 매년8월 첫주에 열리는 국제 영페스티벌에서 기타, 드럼, 피아노 베이스를 연주하며 음악 봉사를 하고 있으며 메주고리에 음악 선교단의 일원으로 2004년 5월 한국 일정에도 함께 참여했다.

남기옥 마르따

그녀는 먼길을 떠나 메주고리를 찾아 온 모든 한국인 순례자들의 마음에 헌존하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심어 주는 메주고리에의 아름다운 열매이다. 이태리어 통역에 능한 그녀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성모님의 메시지 해설과 기도묵상, 요조신부님의 강론, 본당의 모든 전례때에 헌신하고 있으며 그녀가 구사하는 언어 표현은 듣는 이들을 감탄하게 하여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1964년 경기도 출생으로 7대째 전통적인 가톨릭 집안의 무명순교자 집안에서 출생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다. 1987년 이탈리아로 유학해서. 페루지아 언어 대학에서 이탈리아어를 이수한 뒤, 로마 바티칸 교황청립 우르바노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선교신학 박사학위와 바티칸 도서. 고문서 대학교에서 고문서학위를 받았다. 그 후 이태리어 전공서적 번역가 겸 동시통역사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도 성모님이 그녀를 쓰시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음을 그 후의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다. 1998년 요조 조브코 신부님의 한국방문, 2001년 부터 요조신부님이 매년 주관하여 각국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언어권 별 단식.침묵 피정에서 동시 통역을 하였으며 2002년 요조 조브코 신부 미주 한인 순회 강연, 매년 메주고리에에서 개최되는 국제 유스페스티벌, 국제 그리스도인 피정, 국제 사제피정, 국제 기도장 피정, 부부 피정등에서 동시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메주고리에 성모 발현지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번역

하였는데, “메주고리에, 네 어머니신 분, 다섯 개의 조약돌,,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기도, 온 마음으로 드리는 미사,, 마음을 다한 단식, 구마사는 말한다, 정신분석 학자와 구마사의 대담” 등의 책을 번역하였으며 매 월 메주고리에 본당의 소식과 성모님의 메시지와 묵상등을 번역 월보에 기고하고 있으며 현재 이탈리아 동시통역사 협회 회원이며 한국 번역가 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M

● 치유 기도 음악회 일정표 ●

- (1) 11월8일 (월) 오후 7시 디트로이트 성당
Tel: (248) 442-9026, 9027
- (2) 11월 10일 (수) 오후 7시 타코마 한인 천주 교회
Tel: (253) 896-4489 (C) (253) 926-0866
- (3) 11월 11일(목) 오후 7시 포트랜드 성당
Tel: (503) 762-6880 (성 세실리아 성당)
- (4) 11월 12일 (금) 오후 7시 30분 산호세 성당
Tel (408) 734-9721 (성요셉 주교자 대성당)
- (5) 11월 13일 (토) 오클랜드 성당
Tel (510) 553-9434
- (6) 11월 14일 (일) 오후 6시 30분 LA, St. Basil 대성당
평화의 모후 성물센타 Tel: (323) 730-1499
- (7) 11월 15일 (월) 오후 7시 성 토마스 성당
성바오로 서원 Tel: (714) 638-3855
- (8) 11월 17일 (수) 오후 7시 덴버 성 로렌스 한인 성당
Tel: (303) 403-4902 (c) (303) 589-2756
- (9) 11월 18일 (목) 오후 7시 Atlanta 성당 (한국/영어권)
장소 미정
- (10) 11월 20일 (토) 오전 9시 30분 승리의 모후 성당
Tel: (703) 680-9517 피정 음악 기도회
- (11) 11월 21일 (일) 오후 6시 뉴저지 오렌지 성당
Tel: (973) 672-6650
- (12) 11월 22일 (월) 오후 7시 필리델피아 한인 성당
Tel. (215) 715-1901

자세한 문의는 남그레고리오 (610-965-6168)형제에게 해주십시오.

성모영보 축일에 드린 33일 봉헌의 기쁨

김정희 멜라니아
(메릴랜드 성당)

엣그제 순례를 다녀온 것 같은데 잊을 수 없는 작년 로사리오 성월을 한 달여 남짓 앞두고 있다. ‘메주고리에’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벅차도록 거룩하고 은혜로웠던 마을, 어느 날 문득 하느님 아버지 앞에 있는 나를 보면서 그 분을 뵈기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아득한 나의 모습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모님을 통해서 메주고리에에서 성모님께서 진짜 발현하신다는 소식을 접한 지 1년여 지난 어느 날 나는 문득 그곳에 가면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란 확신을 갖고 메주고리로 향하게 되었다.

그렇게 찾아간 메주고리에에는 어릴 적에 외할머니댁에 가서 놀던 나의 옛고향과 같은 아주 평범한 시골 동네였기에 왠지 낯설지가 않았다. 순례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찾아간 야곱 성당에서의 첫 미사는 너무나 감격적이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좀더 그분께 가까이 가고자 제대 가까이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드러보지 못한 거룩한 미사를 드릴 때의 그 감동은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게 했다. 미사 후 성시간은 난생 처음 가져보는 시간이라 어떻게 하느님도 모르고 무조건 성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성체 한가운데에서 뚜렷한 모양의 하트가 보이는 게 아닌가? 그것을 볼 때도 전혀 별다른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특별한 제병을 사용하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성심이었음을 알게 됐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다음날 체나콜로 공동체를 방문해서 그들과 참으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길을 가다가 체험하게 된 성체의 기적과 태양의 기적은 내 눈을 의심하게 했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심에 대한 확연한 증거였다. 발현산을 여러 번 오르내리면서 성모님을 느껴보려

애를 썼으며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며 그 피에 의지해 고통 중에 계신 함께한 순례 동료를 위해 믿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했는가...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죄송해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없으며 마땅히 존경 받고 흠송드려야 할 거룩한 희생의 제물임을 마음에 새겼다. 요조신부님이 계신 성당에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느님의 계획의 하나인 어떤 일을 직감적으로 느끼며 하느님께 감사 드렸다.

며칠간의 순례를 통해 이제는 나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고민하며 나는 발현산 성모님 앞에 서있었다. 뚜렷이 보여지는 두 가지 갈림길에 대한 나의 선택이 나를 갈등하게 했다. 쉬울 것 같지만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있던 내게는 참으로 용기가 필요했다. 마지막 순간 성모님과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나에게도 영광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 하느님을 믿고 온 가족을 봉헌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봉헌하기 전의 그 불안했던 마음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너무나 깊은 평화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견줄 수가 없다던데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잠시 그 평화 속에 머물러 있었다. 8박 9일의 아쉬웠던 순례를 아름다운 드브로브닉 성곽도시의 아름다움과 함께 남겨두고 또 하나의 작은 천국인 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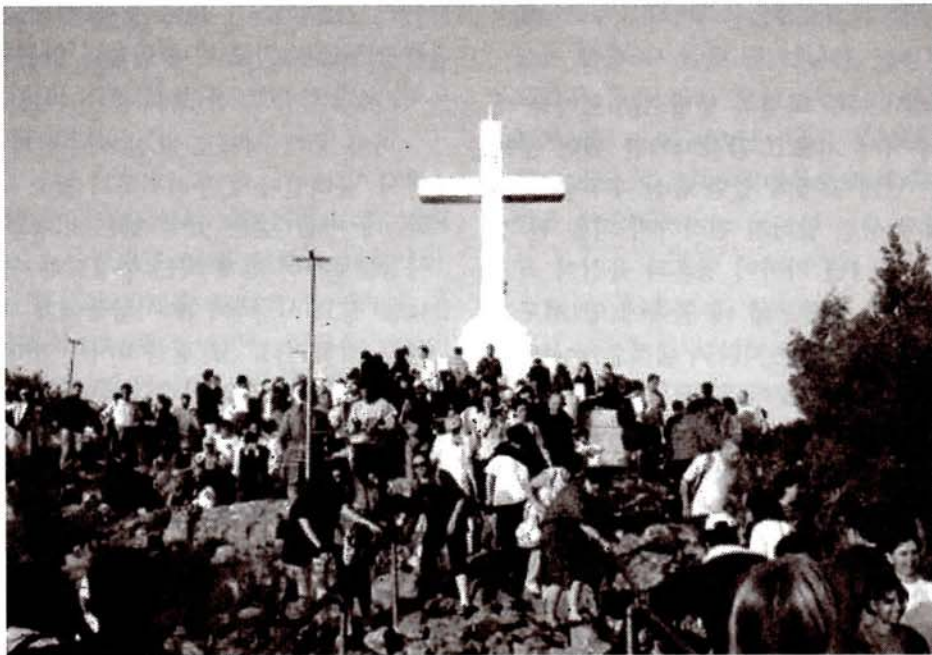
순례 후 어머니의 메시지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단식과 미사 그리고 성경일기는 나에게 무척 힘들었다. 그때마다 당신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시며 어머니께서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 어머니께서 곁에 안계셨다면 5가지의 보석을 모두 실천하는데 분명히 실패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마음의 봉헌을 하고 돌아온 몇달 뒤 순례를 함께 했던 자매로부터 33일간의 봉

뚜렷이 보여지는 두 가지 갈림길에 대한 나의 선택이 나를 갈등하게 했다.
쉬울 것 같지만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있던 내게는 참으로 용기가 필요했다.

헌의 준비와 기쁨에 대하여 알게 됐으며 그 준비를 위해 마련된 테이프를 통해 중요성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의 협조자로서 우리 모두 이 봉헌을 통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구원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 부부는 지체할 이유가 없었기에 봉헌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 3월 25일 성모영보 축일에 기쁨의 봉헌식을 아름다운 성모님 앞에서 하게 되었다.

그날 우리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다시 태어나 어머니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머니께서는 그날의 기쁨이 얼마나 크셨던지 아름다운 당신의 향기로 우리를 감싸주셨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는 매 순간 결정해야 했고 바른 결정을 늘 어머니와 함께 기도 안에서 쉽게 할 수 있었다. 늘 순명하라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새기며 열심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모든 일상생활의 첫자리에(첫 자리에) 그분을 모셨다. 순례와 봉헌을 통해 달라진 우리집의 모습은 1년 전과는 너무나 달랐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십자가와 성모님 앞에서 묵주기도와 감사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매일 미사와 성체조배를 통하여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하



느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에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이러한 우리의 변화는 우리 이웃에게도 전해져 그들도 모두 묵주를 들고 십자가 앞에 모여 어머니께 봉헌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깨달아 봉헌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 나의 모든 의지를 맡겨드리자.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최상의 선물임을 어머니께서 말씀 하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의 바른 선택만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던 적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악습으로부터 이렇게 쉽게 자유로워질 수 있었나?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 생활이 단조로워졌고 그 중에 많은 시간을 하느님께 바쳐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사랑하며 나의 아버지로 늘 그분을 부르며 생활하게 된 것에 감사 드린다. 또한 내 주변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새로운 대인관계를 만들어 주셔서 모르고

지냈던 내 주변의 형제 자매님을 통하여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귀한 형제적 만남을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린다. 사랑하옵 주님! 주님의 작은 밑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M

성체! 예수님의 위대한 현존과 사랑

한울리안나

맨하튼 성 프란치스코 성당 한인 공동체

얼마 전, 미카엘라 자매에게서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성체의 해"에 대한 특집으로 성체에 대한 체험기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쓰게 하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은총의 시련을 겪게 하시어 "성체의 현존"을 증거 하게 하시어 봉헌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되었다.

금년 8월 20일 금요일, 3주전에 남편과 함께 장내시경을 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를 보러 갔던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돌아왔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검사를 해본 것인데 뜻밖에 내 몸에서 '암세포'가 나왔다고 했다.



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는 말에는 참으로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 아버지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좀 봐주시지 그러셨어요." 하고 나니 마음이 슬퍼지며 자꾸 눈물이 나왔다. 미사 중에 성체로 오신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시니 나에게 꼭 필요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데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넘어와 한참을 울었다.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제게서 거두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기도를 바치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지난해 성모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로마와 메우고리에에 불러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기만 했던 순례 이후 그 동안 20년 넘게 고생해 왔던 출산 후유증과 지병, 게다가 미국에서 생긴 알러지 천식까지 치유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1년 가까이 영혼과 육신이 최고의 건강 상태를 누리고 살았는데 내 몸속에 암 세포가 자라고 있었다니 믿기는 어려웠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5년 전, 가슴에 커다란 종양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신앙심도 별로 없었던 나는 어린 아들 둘을 둔 젊은 나이였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술을 받기까지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다른 암과 달리 직장암은 아주 초기라 하더라도 수술을 하여 직장을 폐쇄하고 복부에다 구멍을 내어 변주머니

미사 중에 성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면서 "울리안나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자신을 드러내어라. 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비참한 심정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부터 받게 되는 동정심과 수치심을 받아들이고 너를 알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너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청하여라." 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네 예수님 그 것 마저도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봉헌하고 미사가 끝나자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암에 걸렸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웃으면서 부탁하였다 느닷없이 기도 부탁을 하니 믿지 않거나 깜짝 놀라서 우는 자매님도 있었다. 오히려 내가 암 선고를 받고도 두려움 없이 이렇게 평안 할 수가 있다니 바로 이것이 기적 이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자신을 드러내어라. 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비참한 심정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부터 받게 되는 동정심과 수치심을
받아들이고 너를 알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너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청하여라."

마침 내가 암 선고를 받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퀸스 성당에서 '다니엘 게그논' 신부님을 모시고 강의와
함께 특별 치유 미사가 있어서 수녀님과 뉴욕과 뉴저지
에서 많은 교우들을 만나게 되어 기도를 부탁했다. 미
사 중에 성체안의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좀 이상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와중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지요?"
하고 여쭙었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성
체로 네 마음속에 있으면서 내 평화를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는 내 평화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 하
고 말씀 하시는 것 같아 그랬었구나하며 깜
짝 놀랐다. 전에 어떤 신부님께서 "신앙인
들이 시련과 고통가운데서도 참 평화
를 누리며 살아 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현존하심
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 하신 것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
게 해달라고 오래 동안
기도해온 것을 예수님이 들
어 주시고 혼자 겪지 않도록
성체로 미리 준비시켜 주셨다는
기쁨에 감사의 눈물이 나왔다.

지난 사순 제2주일, 그 날은 내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날이었다. 미사 중
에 성체를 영하고 자리로 돌아와 성체를 씹는 순간
살을 씹는 듯이 물컹! 하고 비릿한 것이 입안 가득하게
느껴졌다. 너무 놀라서 삼킬 수도 없고 토할 수도 없어
심장이 뛰고 숨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
러나 미사 중이기에 간신히 참으며 성체를 삼켰는데 두
렵고 고통스러워 얼마나 겁이 났는지 짐치럼 진정이 안
됐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 하셨듯이 정말 그랬다. 그 느

낌은 분명 살 이었다! 그 다음 주일에 성당에 가면서
미사 중에 또 그런 일이 생길까 겁이 났다. 그 후 한동
안은 성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경기하는 사람처
럼 놀라곤 했다.

이 일은 3월 25일 성모영보 축일에 "성모님께 봉헌을
위한 33일 기도"를 하고 있는 16일째 되는 날 일어났다.
매일의 봉헌 묵상 중 "예수 그리스도 인식하기" "생
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는 그때의 성체
의 체험이 되 살아나서 무척 힘들었다. 친구
가 알고 있는 신부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였다. 신부님은 나의 체험을 진지
하게 들어 주셨고 신부님께도 그
런 일이 생겼다면 똑같이 놀
랐을 거라고 하시며 사실
예수님이 밀떡의 형상
과 맛으로 성체 안에
현존하시니까 우리가
받아 모실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아무도
그 분을 받아 모실 수 없을 거라고
하시며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체험
을 주셨는지 깊이 묵상해보라고 자상하게 말씀
해주셨다. 그날은 바로 3월 25일 성모영보 축일 이
였기에 면담후의 미사 중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성모님
께 나를 봉헌하였으니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
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해 메주고리에 순례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에게
성체의 기적을 보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수난" 영화 중
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너무나 참혹한 예수님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평화를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는 내 평화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

바라보시며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심장에서 나온 심장이여! 나도 너와 함께 죽게 하여다오" 라고 절규하시는 성모님을 보고 예수님의 성체에는 이렇게 성모님의 고통도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았다. 부활절 대축일 낮 미사 후 어떤 형제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보니 10개의 테이프가 모두 성체의 현존과 기적, 조배에 관한 말씀뿐이어서 깜짝 놀랐으나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그대로 현존하고 계심을 알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심을 깨달았다. 나는 그 테이프를 1개짜리로 재편집해서 성체성혈 대축일에 본당 교우들에게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아 나에게 이 테이프를 주신 형제님께 의논을 하였더니 설 틈 없이 바쁜 중에도 기꺼이 300개의 테이프를 복사 해주셨다. 본당신부님이 허락해주셔서 받고 성체성혈대축일 미사의 영성체시간에 전 교우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얼마 후 뉴저지에서 미동북부 성령대회가 주최하는 성령 대회에 참석하니 이번 성령대회는 예년과는 달리 성체대회라고 느껴질 정도로 주체 강사인 브리지맥켄나 수녀님과 케빈 신부님께서 이들 동안 계속 성체의 현존과 성체의 기적, 성체 신심 등에 대해 강의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날에는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까지 있어서 마치 예수님이 불러주신 잔치에 참석한 것처럼 마냥 기뻐다. 더욱 감사한 일은 성령대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매일 미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혼자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시간과 미사시간을 도무지 맞출 수가 없어 못 갔었는데 성령대회 이후 미사 시간이 되면 가게문도 닫고 성당을 가는 나를 이상하고 한심 한 듯이 쳐다보던 남편이 요즘은 내가 미사를 하고 올 때 까지 가게를 대신 봐주고 일을 하러 가는 것이 너무 고맙고 놀라운 일이다.

내가 사춘기였을 무렵 말기 암으로 고생하시던 어머

니는 병문안을 온 이모에게 나와 동생을 부탁하시며 철부지 자식들을 두고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다 시며 우리를 부둥켜안고 슬피 우셨다. 결국 그날 밤 눈도 못 감으시고 떠나신 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34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나는 사랑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차마 그냥 두고 떠나실 수가 없어서 기묘한 방법으로 당신을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남겨 주신 그 사랑을 가슴 절절하게 느끼곤 한다. 암 진단을 받은 후 본당 교우의 도움으로 직장암의 권위자인 의사에게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격려를 받으며 그리고 성체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안에서 신앙의 자유로움을 누리게 해주셔서 무척 기뻐다. 그 의사는 정밀 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행운아다. 떼어낸 혹 외에는 아무데도 암이 번지지 않았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항암제치료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몇 달에 한번씩 검사만 받으면 된다."고 하며 직장암을 이렇게 빨리 발견 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인데 어떻게 장내시경을 할 생각을 했냐고 오히려 놀라서 물어 보는 것이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수술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자비하신 하느님의 뜻에 맡겼던 만큼 기쁨도 컸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부활절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발라 드리려고 무덤으로 가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누가 돌무덤을 막아 놓은 커다란 돌을 굴러줄까 하고 와보니 천사들이 이미 치워 놓는 것이 생각났다. 이 시련을 통하여 베풀어주신 모든 사랑과 무엇보다 가족들이 이번일 들을 겪으면서 하느님께서 현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며 모든 일을 이끌어 주고 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모든 일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이기에 언제나 하느님을 내 삶의 첫자리에 모시고 모든 것 안에서 그 분을 발견하



며 그 분의 눈과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 보리라 결심 하면서 매일 아침 미사 때 마다 성체 안에 오시는 예수님께 나를 봉헌하며 나의 뜻은 죽고 오로지 당신께서 나를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기도 할뿐이다.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신앙체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여김을 받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혹시나 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이 분명하기에 필요한 그 순간마다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실 뿐, 모든 열매는 당신 스스로 맺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게 일어났던 일 그대로 쓰게 되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시련 중에 위로와 힘을 주시고 고통을 은총으로 바꾸어 주신 하느님과 성령께 깊은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부족한 나를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과 수녀님, 신부님들께도 감사드리며 하느님 사랑과 은총 속에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린다.

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감사와 찬미와 사랑과 흠숭을 드립니다. 저의 이 봉헌이 조금이나마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매일 미사에 불러 주셔서 당신의 위대한 사랑이며 현존이신 성체를 매일 모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성모 어머니, 언제나 모든 이들과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M**

2004년 9월 25일 예수 성심 안에서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가는 곳 마다 당신의 향기를 뿌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영혼이 당신의 영광과 생명으로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저의 존재 속에 당신이 들어 오셔서 완전히 소유하시어 당신의 빛으로만 저의 삶이 빛나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 제 안에서 빛나는 당신으로 하여 제가 만나는 모든 영혼이 당신의 현존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저를 통해 당신만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러하셨듯이 저도 빛을 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도록 빛나겠습니다.

주님, 빛은 모두 당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빛은 저를 통해서 타인에게 빛나는 당신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가장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밝힘으로서 당신을 찬미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로써가 아니라 당신을 닮은 표현을 보임으로서 힘을 내게 하시고, 당신을 품고 있는 제 마음이 연민에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증거를 통해 당신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존 헨리 뉴먼의 기도

John Paul II Convoles "Year of Eucharist"

**From October 2004 to
October 2005
The Holy Father will open the
Year of the Eucharist at
the 48th International
World Eucharistic
Congress in Guadalajara**



On the feast of Corpus Christi John Paul II announced a "Year of the Eucharist" that the Catholic Church will observe from October 2004 to October 2005.

At the Mass he presided over today in the Basilica of St. John Lateran, the Pope explained that the Year of the Eucharist will begin with the Inter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Oct. 10-17, in Guadalajara, Mexico.

The year "will end with the next ordinary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which will be held in the Vatican from October 2-29, 2005, and whose theme will be 'The Eucharist: Source and Summit of the Life and Mission of the Church,'" the Holy Father added.

John Paul II, who reminded the faithful that the

"Church lives from the Eucharist," has made this sacrament the focus of his pastoral concern, as reflected in his 2003 encyclical, "Ecclesia de Eucharist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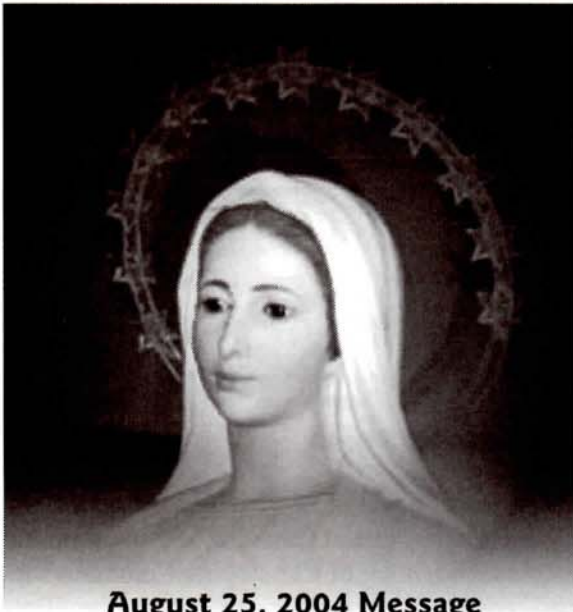
"Christ, 'the living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is the only one who can satisfy man's hunger at all times and in all parts of the earth," he said.

In the Eucharist, "Christ gives his Body and Blood for the life of humanity. And all those who nourish themselves worthily at his table, become living instruments of his presence of love, mercy and peace," the Pope explained.

As has been the custom since the beginning of this pontificate, at the end of the Mass John Paul II presided over the procession of the Eucharist from the Basilica of St. John Lateran to that of St. Mary Major.



Monthly Reflection on the Message



August 25, 2004 Message



Dear children! I call you all to conversion of heart. Decide, as in the first days of my coming here, for a complete change of your life. In this way, little children, you will have the strength to kneel and to open your hearts before God. God will hear your prayers and answer them. Before God, I intercede for each of you.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Dear Family of Mary!

Our Lady message is stirring up new hope in my life!
New life is possible! New hopes, new dreams, and

new hearts are waiting for us, if we respond to Our Lady's invitation. She wants us to believe that a new life, and complete change in our lives, is possible. And not just possible, but really God's desire!

If we believe, we will have the strength to "kneel and to open [our] hearts before God." This is the key to change. We must come before the Lord in an attitude of reverence, awe, and complete trust. Kneeling is significant of such an attitude. And when we approach the Lord in this attitude of trust and reverence, we will open our hearts to Him. It is in the heart that change takes place. If we can invite the Father into our heart, with no fear, He will begin to recreate it in His image! He will help us to have new hearts!

I would like to suggest a helpful method for opening our hearts to the Father in this way. It involves praying through the Twelve Steps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Alcoholics Anonymous. These steps are a wonderful way to open up to the Lord in a practical and fruitful way. We may not have a terrible addiction, but each of us has something we wrestle with deep in our hearts. Those things that plague us can only be beaten by the Lord. Understanding this is half the battle. Just as Our Lady says, if we open our hearts to the Lord, He will hear our prayers and answer them. He will enter our hearts and conquer what dwells there, freeing us to worship and love Him.

Step one : We admit we are powerless over _____ - that our lives have become unmanageable.
Just as my friend admitted yesterday, we all have something that troubles us deeply. It may be an addiction, but it may be a fear or a debilitating attitude.



It may be a bad habit or some sort of idolatry. Whatever it is, we haven't been able to beat it alone. We may not even know it is there. But God does. And He alone can free us from its power.

It takes a great deal of humility, and sometimes humiliation, to reach this conclusion. But once we realize it is true, we feel immediately free. Why? Because in the truth of our weakness, we can finally surrender to the Lord in that area of our lives. Let's kneel before the Father today, and ask Him to reveal to us where we are most bound, powerless to a force beyond us. Let's ask Him to show us the truth about our hearts, so that we can give them to Him in deep surrender. This first step is priceless! It is our ticket to the truth, and to freedom.

Father, we are yours. We kneel before you, opening our hearts to your powerful love. Show us what you see there. Help us to accept what you see, and trust you to heal us. Mother Mary, do not stop interceding for us. We want to change completely! **M**



How The Blessed Mother Was There with Christopher Columbus !!



You won't read about it in your history books -- not even the ones they use at Christian schools -- but there was a hidden member of Christopher Columbus's crew on that voyage to America, and it was the Blessed Mother. Consider this: before setting out on his historic journey, Columbus visited a shrine in Spain dedicated to the apparition of Mary that had been reported by a shepherd named Gil Cordero a century before (in 1326). It was in the hilly terrain southwest of Madrid -- near a river known, ironically, as "Guadalupe" (which would later be the name of a second apparition site in Mexico) -- and some believe Columbus not only knelt here in supplication (we know he was dedicated to this shrine) but carried a replica of the Blessed Mother from it as well.

That replica may well have been on the ship he sailed -- once more ironically, the Santa Maria. We know this from his diary: every night Columbus and his crew sang the Hail Mary, and faithful to her -- watching for signs -- he knew he was on the right course when on September 15, 1492, a "marvelous branch of fire" or "prodigious flame" fell from the sky.

An omen?

We can't be sure but once across the Atlantic this faithful son named the first island he encountered "San Salvador" -- for The Savior -- and the second island, "Santa Maria de la Concepcion." Others were given names like "Montserrat" (after an ancient Marian shrine in northern Spain), "Guadeloupe," and the Virgin Islands. Most intriguing is the fact that at

landfall Columbus and his men prayed the Salve Regina.

Thus, the first Christian prayer ever recited in the New World was an entreaty calling on Mary as the Holy Queen, as the Mother of Mercy, as the gracious advocate.

No, you won't find that in history books, nor will you learn that America's oldest city, St. Augustine in Florida, was founded by Franciscans on the feast of the Virgin Mary's nativity and that the Mississippi was originally known as the "River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and that Montreal was originally "Ville-Marie" and the Chesapeake Bay the "Bay of St. Mary."



Indeed, the oldest prayer book in the United States, Garden of the Soul, contained five holy days of obligation dedicated to her!

There are many who believe the Blessed Mother also had a role with George Washington. Of this we are less certain. For

years we have tried to track this legend down. According to volume four, number 12 of an old veterans publications known as the National Tribune - - now called Stars and Stripes -- a very old man named Anthony Sherman (perhaps impossibly old) was quoted as saying that a strange, beautiful woman appeared to Washington during the retreat to Valley Forge in 1777 -- showing him the future of the na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 the Civil War; and a third vision in which a shadowy angel placed a trumpet to his mouth and blew three

distinctive blasts, and taking water from the ocean, sprinkled it on Asia, Europe, and Africa. From those places rose thick black clouds that were soon joined into one, and throughout the mass was a red light by which hordes of armed men, moving with the cloud, marched on land and sailed by sea to the Americas to do her damage, destroying towns, villages, and cities.

It is an apocryphal account but it dates back at least to 1880 (that's when the National Tribune reported it), and whatever the case, it eerily brings to mind terrorism. Columbus. Washington. And September 11. As we have reported, and as we will further comment upon soon, the Blessed Mother was also aboard Flight 93 on that fateful day and once more may have had a hand in forming and helping and saving this country.

From WWW.SpiritDaily.com by Michael Brown **M**

Maria Esperanza, Widely Considered the Greatest Catholic Mystic in Decades, Dies in New Jersey



World-famous seer Maria Esperanza who is widely considered the greatest mystic since St. Padre Pio, died Saturday at 4:36 a.m. after a long bout with a Parkinson's-like ailment.

Esperanza, 75, has been in a semi-comatose state since July 6, when she was rushed to Southern Ocean County Hospital near the shore in New Jersey, where

she has been staying since last Christmas. Her home is near Caracas, Venezuela.

Tightly clinging to life, the mystic had made a remarkable rebound from that episode and an earlier one on April 20, but finally passed Saturday in a private home with all members of her immediate family -- husband Geo, seven children, and all her grandchildren -- gathered at her bedside. Her death was accompanied by the strong fragrance of roses and preceded by dreams experienced by those close to her, including son Giovanni, who rushed to her bedside from Venezuela just days before.

With her especially was dedicated husband Geo, her closest companion in life and a man whose spirituality approached hers. He stated that her death brings not the end but a "new dawn."

She and her family had been staying at the private residence in Long Beach Island. A Mass had been concelebrated by four priests Friday evening in the home, at which time the Precious Blood was brought to her lips, causing what witnesses said was a noticeable response from the mystic, who was known for her healings, visions, stigmata, bilocation, and an astounding array of other charisms.

Esperanza was born on November 22, 1928. Her mother had desperately wanted a daughter (she already had three boys) and asked the Blessed Virgin Mary to grant her a girl. True to the prophecy of a local woman, who in an omen foresaw the birth of an extraordinary child, Maria was born in Barrancas on the feast day of Saint Cecilia, who is associated with



music. The birth occurred while Maria's mother was taking a trip by boat and in fact arriving at a port in search of better medical facilities. It was a very painful delivery, and during her pregnancy Maria's mother had often prayed before a picture of the Blessed Mother - offering her child to Mary and promising to name the child Maria (Spanish for Mary) and Esperanza if it was a girl.

So came into the world "Mary Hope." As a child she often played with dolls dressed as priests or nuns and at the age of five (while bidding her mother, who was taking a trip, farewell at the port of Bolivar City), the girl saw a smiling woman rise from the Orinoco River with a rose in her hand.

It was an alleged apparition of St. Therese of Lisieux, the "Little Flower," and henceforth roses or their fragrance would hover about Maria. The rose St. Therese held was extraordinarily beautiful, a brilliant red flower that was "thrown" to young Maria. Her mother immediately proclaimed the rose a sign from God.

Such claimed phenomena - and soon much more - are difficult for even the seasoned believer to comprehend. They invoke legitimate use of words like "incredible." In later years many around Esperanza were to witness other phenomena related to roses, including the inexplicable falling of rose petals.

Such occurrences were regular happenings around Maria. So are "coincidences." Feast days of the saints, especially those commemorating Mary, figure prominently into her diary. Esperanza received first Communion on July 16, 1937, the feast of Our Lady of Carmel, and soon after the young Maria encountered tremendous physiological tribulation.

By the age of 12 she had developed such an acute case of pneumonia that her doctor didn't think she would live more than three days, but after prayer she opened her eyes and saw the Blessed Virgin. According to Maria the Virgin appeared as Our Lady of the Valley of Margarita (an apparition site off the coast of Venezuela) and told the girl what medication to take. During an especially severe illness in 1947 Maria was

paralyzed for several months but miraculously healed upon a vision of the Lord. "At that moment something happened, which I know for the world is impossible to believe," comments Maria -- who recalls that the instantaneous healing was accompanied by a startling tremor that shook the hospital.

There were other trials in Maria's sickly early years, and during another episode Christ manifested to her and again she was healed.

On August 22, 1954, on a visit to Caracas, Maria had a

dream about a place where miracles would take place and where there would be an unusual blue butterfly. This turned out to be the apparition site now known as Betania near Caracas.

The Virgin Mary told her that she had a cause to "help me to save this lost world," and so began Maria's journey. It ended in the United States, where she was said to be on a special "mission." One of her last acts was to visit New York and pray around St. Patrick's Cathedral in mid-town Manhattan.

(We will continue to share her life story in the future editions.) **M**

IT MUST BE TERRIBLY DIFFICULT TO BE IN IRAQ WITH A SICK WIFE AT HOME.

(Prayer request for Gary and Cindy Hogan)

Gary is serving in Iraq while his young wife is fighting cancer here. Prayer is a powerful thing.

THIS COUPLE NEEDS OUR PRAYERS. PLEASE read this. IT MUST BE TERRIBLY DIFFICULT TO BE IN IRAQ WITH A SICK WIFE AT HOME.

Bobby S. Briggs, MSgt, USAF 823 ESFS/SFOC Flight Sergeant BAGHDAD AB, IRAQ

Here is the email from Gary pleading for his dying wife!! Tough times don't last... Tough people do !!! My name is Gary Hogan.

Some of you receiving this know me, some do not. My wife, Cindy, is 32 years old and has just been diagnosed 3 days ago with stage 4 cervical cancer and her chances for survival are very slim.

She was pregnant with our second child and had miscarried recently at 3 months, and now we know why. This is a request for you to forward this e-mail to everyone you know asking for prayer. The more people that pray for her to be healed, the better.

Pray and forward. It only takes a second to hit "forward". Please do it and don't delete this, your prayer can and perhaps will save her life. Please pray and ask everyone you know to pray for the HEALING of Cindy, removal of all cancer in her body so she may enjoy all that life has to offer, and to continue to be the wonderful mother to our 5 year old son, Michael.

The power of Prayer is unsurpassed I want the whole world to have her in their prayers the next few weeks. God will hear our cry. Please do not be offended by my plea. This is only a request for your help.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or reading this and helping with our request for healing! No words can express the power we have when we each do a little to come together.

Regards, Cindy's in-love husband - Gary

Thank you, and please send it to the far reaches of our world.



▶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라고 하시는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주신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성모님의 소식지 "메우고리에"는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으로 발행되어 무료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번 23호도 특집으로 발행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최혜영. 이로서. 유글라라. 신바로. 주황룡부부. 최프란치스코부부. 오세실리아. 이비비안 권레지나. 김멜라니아. 노안나 그리고 모든 후원회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분들을 도구로 쓰시어 선교회에서 성모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체험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성모님께서 미리안나와 비스카에게 발현하실때 봉헌했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미사와 기도 지향들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있었던 메우고리에 순례때 가지고 가서 미사를 드린 후 성모님께서 미리안나와 비스카를 통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하며 봉헌했습니다.

▶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인쇄하여 한국으로 보내던 소식지를 23호부터는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그곳에서 직접 인쇄하여 보다 더 많은 곳으로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캐나다에서 수고해주시는 모든 봉사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메우고리에"지는 좋은 선교도구입니다.**

성모님의 소식지 "메우고리에"에는 성모님의 사랑과 손길이 담겨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냉담하고 있는 친척이나 교우분들에게 전해주세요. "메우고리에" 소식지를 원하시는 분은 소식지 뒷면의 주소로 연락하시면 어디든지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

▶ **매일 미사 책을 보시면...**

미주가톨릭에서 발행하는 매일 미사책을 보시면 성모님께서 매달 25일에 주시는 메시지와 선교회의 순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선교 일기**

김기수 신부님의 중국 선교 일기는 성체의 해 특집으로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 **선교회에 보내주시는 미사와 기도 지향은...**

- 1)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는 보내시는 그대로 비스카에게 전달됩니다.
- 2) e-mail, 전화, 팩스,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일반 기도 지향은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란에 기재되며 선교회의 자문신부님들의 미사와 많은 분들이 중재기도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 3) 미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향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선교회 자문신부님들께서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정성껏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 4) 보내주시는 모든 미사와 기도지향들은 메우고리에 순례 때 정성껏 미사를 봉헌해드리고 있으며 발현 목격자인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께서 발현하실때 봉헌하여 축복을 청해드리고 있습니다.

▶ **연말 연시에 필요한 감사와 사랑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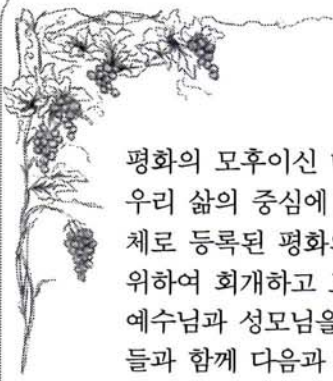
다섯개의 들, 33 일의 봉헌, 메우고리에, 추수, 메우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 테잎 (3 Set), 멜런타의 음악 CD Set, (CD 판매의 수익금은 메우고리에본당, 어머니마을 고아원, 하느님 사랑의 자녀 수도회, 평화의모후 선교회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대로 하여라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965-6168. Fax : (610) 965-6179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 발행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 자문위원단 :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 편집위원 : 오영숙, 양의현, 송시원, 남미자, 이해인
- 인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평화의 모후 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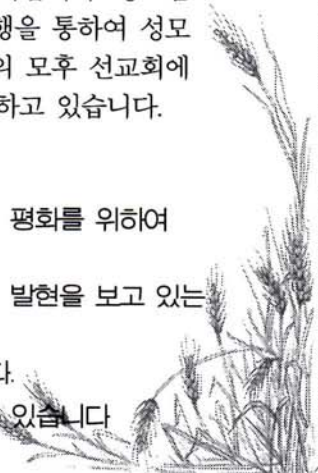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뉴욕교구 가톨릭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를 발행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회개하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원 회원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 2. 신앙 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3.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5. 한.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6. 메주고리에 관련 책 번역 및 출판 보급
- 7.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관련인사 및 메주고리에 목격증인 초청 강연회 개최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며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들을 성모님의 평화의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메주고리에" 소식지의 의 꾸준한 발행을 통하여 성모님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 선교 사명에 쓰여지고 있으며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후원 회원님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2. 메주고리에 순례 때와 매월 성모 신심 첫 토요일에 회원들의 기도 지향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해 드리고 있습니다.
-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와 모든 기도 지향"을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에게 전해 주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 5.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날 짜 년 월 일

성명 : _____ 영문 : _____ 영세명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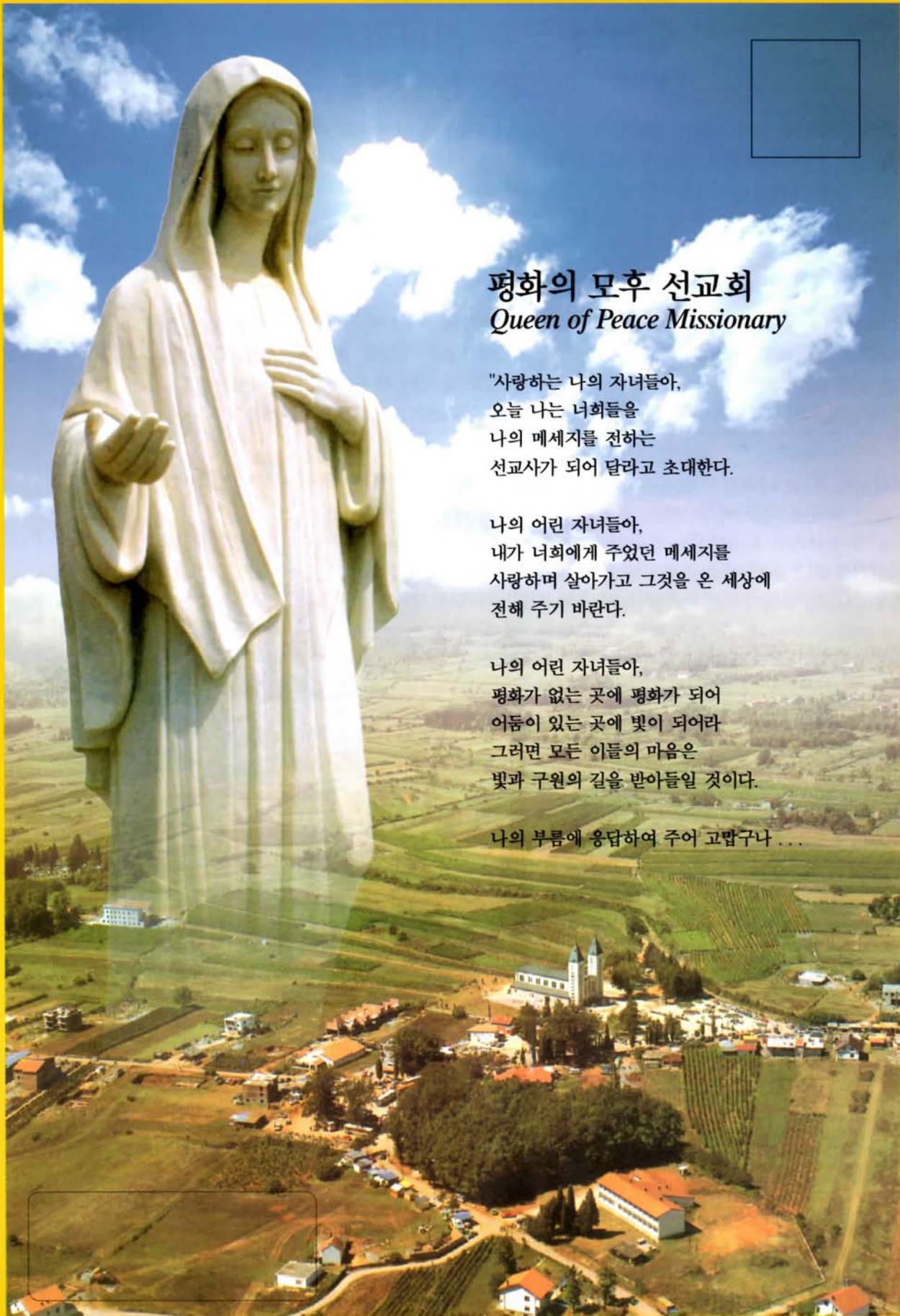
주소 : _____

전화(H) : _____ 전화(O) : _____ Fax : _____

E-mail : _____ 소속분당 : _____

해당란에 표 하여 주십시오. 월() 년() 기타() 금액 \$ _____ 기존회원 () 새회원 ()

보내실곳 ▶ 미국 : 남그레고리오 (610-965-6168) *
Queen of Peace Missionary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 한국 : 옥수동 성당 / 허혜경 안젤라 (017-785-3535)
 서울시 성동구 옥수 1동 511-12 전화 : 02-2297-2038
 외환은행 : 081-18-371119-5 예금주 : nam grego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들을
나의 메세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달라고 초대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메세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해 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들의 마음은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구나...



USA

남 그레고리오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Tel. 610-965-6168 / Fax. 610-965-6179
E-mail : gregorynam@hotmail.com

CANADA

이종용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KOREA

유수동 성당

서울시 성동구 옥수 1동 511-12
Tel. 02-2297-2038 / 허 안젤라 HP. 017-795-3535
E-mail : hhk2123@hanmail.net